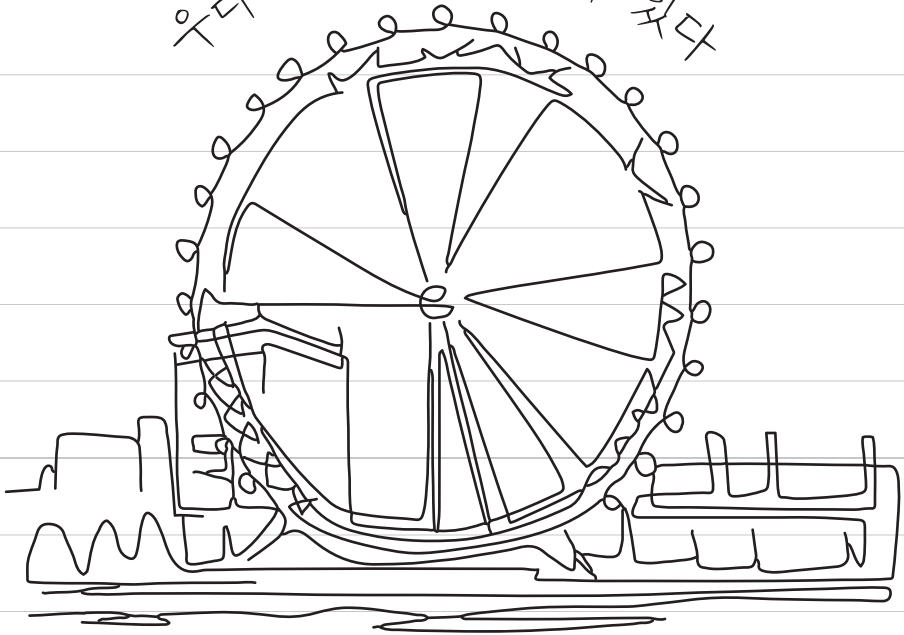


감성충만

예산학교

우리는 스스로 배울 수 있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2020년 11월



- 이 자료집은 서울시NPO지원센터 2020년 NPO 참여예산제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프롤로그 : 시민사회 예산교육은 왜 실패할까!

2019년 11월 어느 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예산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 참여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1/3은 시민사회 예산교육을 '단체 회계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고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시민사회 예산교육을 '회계 관련 교육'으로 오해했을까?

시민사회 예산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일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시민사회 예산교육은 과거와 비교해 훨씬 많이 증가했다. 주민참여예산, 마을 만들기, 협치, 주민자치회 등에서 예산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만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이 시민사회 예산교육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교육의 효과는 어떨까. 다수의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시민사회 예산교육을 '회계 관련 교육'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이 가지는 오해와 혼란함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학습요과 피라미드



왜 이런 오해와 혼란함이 일어날까? 간단하게 시민사회 예산교육이 기억에 안 남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기억에 안 남지만, 시민사회 예산교육은 변화 없이 진행된 것이다. 시민들을 수동적인 교육 참여자로 ‘듣기’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학습효과 피라미드는 교육 참여자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했을 때, 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시민사회 예산교육이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교육 진행자 중심의 교육은 교육 참여자를 수동적인 역할로 제한하게 된다.

2019년 11월 어느 날 이후, 교육 참여자 중심의 교육 참여자의 적극성을 활용한 시민사회 예산교육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렵다는 시민사회 예산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면, 민주시민교육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듯이, 시민들의 질문도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질문과 믿음들로 시작된, 시민들의 질문이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 시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기획의 시작

오감만족 예산학교 기획은 다음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 시민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
- 시민들 사이의 협력과 칭찬의 관계는 배움을 촉진한다.

오감만족 예산학교의 믿음은 수가타 미트라(Sugata Mitra), 벽 속의 구멍 프로젝트(www.hole-in-the-wall.com)에서 시작되었다.

〈벽 속의 구멍 프로젝트 : 학생의 자기 주도성¹⁾〉

‘부자인 아이들은 왜 재능과 학력이 더 뛰어날까?’

인터넷이 세상에 모습을 보이던 초기, 지역 내 네트워크 담당이었던 연구자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된 빈민가 아이들의 교육적 소외와 현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어느 날, 빈민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에서 ‘호기심’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부자인 아이들과 같은 환경 즉, 빈민가 아이들도 자신들의 재능을 찾고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사무실 외부 벽에 컴퓨터를 설치해 배움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몇 달 후, 아이들의 모습을 본 연구자는 경악하게 된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아이들은 무수한 도전과 서로의 가르침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탐색, 음악 영화 시청, 심지어 메일 계정을 만들어 편지 주고받기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믿기 힘든 결과에 연구자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어디까지 배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더 확장되었고, 인도의 더 오지 마을, 파키스탄 그리고 영국 등지에서 반복 실험을 진행한다. 반복 실험에서 아이들은 교사의 가르침이 없는 상황에서도 ‘호기심’과 ‘도전’으로 무수히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려 스스로 배울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주며 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 학생들의 호기심(동기부여)과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

둘,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 그들이 할 수 없었던 태도와 가치를 기르는 데 좀 더 초점화 할 필요가 있다.

1)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사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 테크빌교육, 2020년, pp 240~241.

오감만족 예산학교 사례집 순서

1. 오감만족 예산학교 개요
2.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사례, 1주차
(10월 12일~16일, 1회차/2회차 교육 진행)
3.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사례, 2주차
(10월 19일~23일, 3회차/4회차 교육 진행)
4.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사례, 3주차
(10월 26일~30일, 5회차/6회차/7회차 교육 진행)
5.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평가 공유회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7시~9시 진행)
&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확산 사례 소개

1. 오감만족 예산학교 개요

○ 오감만족 예산학교 진행기간

- 2020년 10월 12일~30일 (7회 진행),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1회차 교육 :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19:00~20:30

2회차 교육 :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19:00~20:30

3회차 교육 :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19:00~20:30

4회차 교육 :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19:00~20:30

5회차 교육 :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19:00~20:30

6회차 교육 :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20:00~21:30

7회차 교육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19:00~20:30

○ 오감만족 예산학교 참여자

- 교육 참여자 : 9명

○ 오감만족 예산학교 참여자 참여 동기(참여 동기 작성자만 기재)

» 예산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 했습니다.

»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교육 기법을 배우고 싶어서 참여함.

» 참여예산 교육방법에 대한 변화.

» 길을 오가다 보며 마주치는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최근 시민참여의 길을 많아졌는데 실제 내 일상의 고민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들어 이번 예산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지인추천, 교육명이 참신해서.

» 주민을 괴롭히는 워크숍이나 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서.

» 참여예산에 대해 효과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① 교육 참여자 : 시민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

□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지점 만들기

오감만족 예산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을 고민하고 실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교육 진행자의 역할보다는 교육 참여자들 주도적인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은 교육 참여자의 '호기심'과 '도전'으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교육 참여자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 활용된 교육 방법론은 VTS(Visual Thinking Strategies)이다.

〈VTS(Visual Thinking Strategies) 교육 개념〉²⁾

뉴욕현대미술관의 교육부부장으로 근무하였던(1983~1993) 예나윈(Yenawine)은 1987년 뉴욕현대미술관 어린이부터 연구자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왜 현대미술은 난해한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감상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는 있었는가?', '더 많은 배움을 얻었는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예나윈은 뉴욕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육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인 하우스젠(A. Housen)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예나윈과 하우스젠은 함께 미술관에서 가르친 것을 교육 참가자가 어느 정도 기억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내용을 교육 종료 직후의 질문에서도 기억하지 못 하였다.

2) "필립 예나윈, 손진현 · 배진희 · 신지혜 · 정현정 역, 『이미지로 키우는 사고력, VTS.』, 미술문화, 2019년."의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예나원과 하우젠은, '왜 교육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된다. 미술관 감상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 참가자가 무엇을 알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교육 참가자가 어떻게 활용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초보적인 교육의 참가자에게는, 교육의 목적으로 '지식의 전달'이 강조되면, 초보적인 교육의 참가자는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감상하는 것을 중단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학습 포기 발생).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예나원과 하우젠은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는 경험'은 개인적인 관찰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 보는 것'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교육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스스로 보는 것'은 교육 참가자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역량을 활성화 또는 재활성화 시키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관찰을 넘어서 '말하는 것', 나아가 '계속 질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방법으로 VTS가 개발되게 된다.

이후 VTS는 1991년부터 뉴욕현대미술관의 감상교육방법으로 시작되어 시각적문해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향상을 촉진하는 교육방법으로 인정된다. 1995년 비영리단체 VUE(교육에서의 시각적 이해, Visual Understanding in Education)의 창설과 더불어 수업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수많은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게 된다.

② 교육 참여자-교육 진행자 : 시민들 사이의 협력과 칭찬의 관계는 배움을 촉진한다

□ 시민들 사이의 협력과 칭찬 관계 형성하기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참여자의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지점 만들기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교육 참여자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 참여자 개인의 학습을 촉진하고, 배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와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 참여자들은 일상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로 질문을 던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질문은 지적 호기심의 결과물이다.

〈배움은 어떻게 얻어지는가?〉³⁾

우리의 교육은 그동안 정답만을 중요시해 왔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지식의 총량은 항상 증가하여 왔다. 이제는 제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지식의 양과 지식에 대한 접근성의 변화는 개별적 지식의 가치를 추락시켰다. 엄청난 속도로 지식이 쌓여 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지식이 금세 옛것이 되어버렸고,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모두에게 공개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답을 아는 것이 특별한 권력을 뜻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질문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MIT 미디어랩의 이토조이치는 배움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탐구하는 어린이의 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질문을 가장 효과적인 학습 도구로 제시하였다. 또한 질문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질문에서부터 정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질문은 지식을 배우고 선택한 후 자신의 것으로 구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이 아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는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질문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질문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주며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교육 참여자 사이의 관계로 중요하지만 교육 진행자와 교육 참여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교육 참여자가 교육 진행자를 신뢰하지 못 한다면 질문은 멈추게 된다.

3) “전병규, 『질문이 살아나는 학습대화』, 교육과학사, 2016년, pp 44~51.”의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질문하는 문화, 어떻게 만들까요〉⁴⁾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을 떠올려 봅시다. 학생들은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탐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치고 말죠. 어느새 질문을 하는 일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교실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실 공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먼저 학생이 질문을 했다는 것, 그 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학생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주십시오. 학생의 질문을 향한 선생님의 열린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찬 교실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질문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질문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생각을 촉발할 수 있는 소중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질문을 솔직하게 말하며 가치 있는 생각을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질문하는 문화는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선생님의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교실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어 학생의 '배움'에서 끝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생을 선생님과 함께 앎을 구성해 가는 존재로 생각해 주세요. 학생이 만든 질문을 토대로 서로 가르치고 배울 때에 학생이 경험하는 학습의 의미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초기에는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은 대면 교육을 전제로 기획되고 설계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이 바로 시민들 사이의 협력과 칭찬 관계 형성하기였다. 촉박한 일정과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교육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만든 규칙은 '총조평판 금지'와 '칭찬 샤워'이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모두는 타인의 이야기에 대한 총

4) “정혜승 외, 『학생이 질문하는 즐거운 수업 만들기 : 놀이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년, pp 23~25.”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고, 조언, 평가, 판단은 금지되고(충조평판 금지), 칭찬만이(칭찬 샤워)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했다.

〈충조평판 금지〉⁵⁾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한데, 기본 원리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안다' 같은 말과 생각은 마음 듣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말을 해도 상대의 마음을 알기 어려운데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니요. 그건 순전히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만 판단하겠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확률은 매우 낮은 것입니다. '오직 모를 뿐'이란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도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고집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충조평판'(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조평판'은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고, 조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라고 충고, 조언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고, 조언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기분을 들 수 있겠지만 거슬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조언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듣는 단계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음 듣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원할 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조언하는 것은 간접적인 비난과 같습니다.

5) "배광호 최시원, 『중 고교 선생님을 위한 화법수업 34차시』, 문학과지성사, 2020년, pp 111~120."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칭찬 사워〉⁶⁾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칭찬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표현한 것이다. 한편으로 맹목적인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다. 어쨌든 교육 참여자들은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칭찬 한마디 듣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을 들음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칭찬 사워’는 교육 참여자가 가진 긍정적인 성향이나 장점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것들에 더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도록 내용과 근거를 들어 칭찬의 글을 쓰고, 해당 교육 참가자에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칭찬은 듣는 순간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더불어 평소에 자신과 자주 어울리는 학생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과 장점을 발견함으로써 좋은 교우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활동을 마친 뒤로 교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아이들이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내뿜은 긍정의 에너지가 교실에 가득했다.

성격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심해서 자신의 장점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활동이었다.

6) “김원경 이형석, 『슬로리딩, 교육과정을 품다』, 에듀넷, 2019년, pp 88~92.”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 교육 효과 강화하기 : 근접발달영역⁷⁾

비고츠키는 우리가 지식이 풍부한 다른 사람(MKOs : Most Knowledgeable Others)에게서 배우고, 근접발달영역(ZPD :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은 비고츠키의 주장을 참고하고 지식과 사고는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그 효과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은 교육 참가자의 개인적인 앎이 소통되고 공유되면서 상호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 진행자의 일방적인 지식과 사고의 전달보다는 효과가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참가자들이 매주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교육 참가자의 개인적인 앎이 체계적으로 소통되고 공유되면서 상호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었다.

7) "밥 베이츠, 사람과교육 번역연구팀, 『교육학콘서트』, 사람과교육, 2018년, pp 60~61."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비고초키 : 근접발달영역>

교육 진행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주제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과 소통한다.
- 주어진 과제를 작은 하위 과제로 나눈다.
- 개인이나 그룹이 하위 과제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주요 과제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 지식이 풍부란 다른 사람이 다른 학습자들을 돕도록 격려한다.
- 각자 모방하고 내면화해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의 표본을 만들도록 한다.

근접발달영역이라는 말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단지 어떤 사람이 주제에 맞는 직접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용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다음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근접발달영역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사전지식이나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한다. 이것은 학습자들과 교류하기에 좋은 방법이며, 학습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하여 기록해 둔다면 평가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그룹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메인 그룹을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그룹에 적어도 한명의 지식이 풍부란 다른 사람을 둔다.
- 주요 과제를 작은 하위 과제로 나눈다.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뿐 아니라 하위 과제를 완료했다는 성취감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과제에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한다.
-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경청하면서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찾게 한다. 주제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얻은 정보를 조정하고 채택함으로써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과제에 도전하게 한다.
-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자신이 다른 사람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한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은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진행자가 교육 참여자의 변화를 교육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참여자가 일종의 과제 형식으로 작성하는 ‘활동일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활동일지’는 교육 참여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타인에게 질문하고, 함께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촉진하는 과정을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활동일지’는 일상적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습관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도 고려되었다.

〈참여와 배움의 기본이 되는 성향〉⁸⁾

학생들이 더 높은 사고와 학업 성과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학생들에게 지금보다 한층 다양한 기술과 태도를 실천하고, 발전시키고, 증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현재 널리 쓰이는 단편적인 평가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학생들이 ‘마음습관’을 키워서 전략상 중요한 능력을 활용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키우게 해야 한다.

습관이란 딱히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 무엇이다. 학생들은 평소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암기하며 보통 ‘자동적’으로 대응하지만, 명확한 답을 즉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유연하게 사고하기, 질문하기, 문제 제기하기와 같은 마음 습관이 발현되면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자신 있게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 마음습관은 자동 반응 상태에서 의식을 집중된 상태로 전환하는 그 중요한 지점에 자리한다.

열여섯 가지 마음습관은 지능을 바라보는 현대적인 관점을 반영해서 전통적인 능력 중심 이론에서 벗어나 ‘성장형 사고 방식’⁹⁾을 기반으로 한다. 이 습관들은 ‘소프트 스킬’ 또는 ‘비인지적 스킬’이라는 용어로도 흔히 불리는데, 그런 이름만 들었을 때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술로 느껴진다. 그렇지만 사실은 고도의 인지적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키우기 힘든 기술에 속한다.

8) “베나 칼릭 앨리스 츠무디, 신동숙 역,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바꿔라』, 한문화, 2019년, pp 31~35.”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9) 미국 심리학자 캐롤 드웁이 제시한 용어이며, 무엇이든 새롭게 배워 나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자세를 말한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 끈기 있게 매달리기 : 포기하지 마라
-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고, 끝까지 집중하기
- 충동 조절하기 : 서두르지 마라
-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차분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기
-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듣기 : 타인을 이해하라
-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기,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내 생각은 잠시 보류하기
- 유연하게 사고하기 : 다른 측면에서 보라
- 관점을 바꾸고, 대안을 생각해 내고, 선택 가능한 여러 조건을 고려하기
- 내 생각에 대해 생각하기(메타 인지) :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 자기 생각, 전략, 시준, 행동을 인식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 정확성과 정밀성 가하기 : 한 번 더 확인하라
- 정확하고, 확실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
-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기 : 정말 그런지 어떻게 확신하는가
-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 갖기, 결론을 얻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인식하고, 질의 전략을 세우기
- 과거의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 배운 것을 활용하라
-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해서 배운 것 이상으로 활용하기
- 정확하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대화하기 : 명확히 말하고 행동하라
- 말이나 글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잉 일반화, 왜곡, 결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기
-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자료 수집하기 : 본능을 활용하라
- 미각, 후각, 촉각, 근육 감각, 청각, 시각 등 모든 감각 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 창조하기, 상상하기, 혁신하기 :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
-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능숙함과 독창성을 추구하기
- 경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 해결하는 과정을 즐겨라
- 놀랍고 신비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경이로운 현상과 아름다움에 호기심을 느끼기
- 위험부담이 있는 모험하기 :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라
- 대담한 자세로 익숙하고 자신 있는 영역 밖의 분야에 도전하기
- 유머 찾기 : 유쾌하게 웃어보자
- 엉뚱하고, 기이하고 예기치 못한 점을 찾아보고 기분 좋게 웃고 넘어갈 줄 알기
- 상호 협조적으로 사고하기 : 협력하라
- 타인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배우고 협력하기
- 지속적인 배움에 열린 마음 갖기 : 경험에서 배워라
- 겸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활동일지’는 교육 참여자의 개인적인 ‘질문하기’로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개인 교육 참여자가 포착한 이미지를 매개로 교육 참여자 집단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미지를 문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말의 근거를 구성하는 역량의 강화를 이끌어내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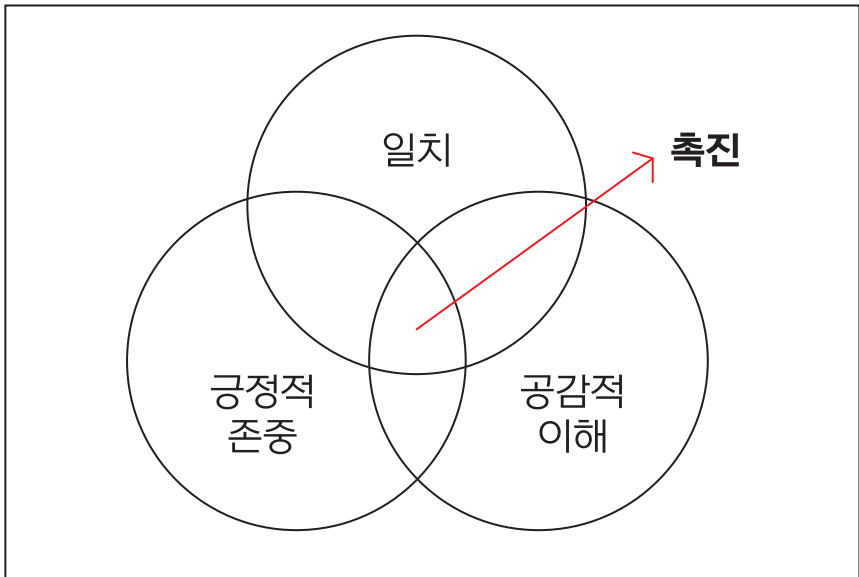
③ 교육 진행자 - 촉진하기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에서 “교육 진행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어렵지만 타당한 문제제기이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은 교육 참여자를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진행자는 역할은 교육 참여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여기서 참고한 내용은, 인본주의 교육학의 로저스이다. 19세기 초중반, 이전과 달리 학습 과정의 중심이 교사가 아닌 학습자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로저스는 이러한 주장에 응답한 인본주의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인본주의의 등장으로 교사의 역할은 전문성과 권위를 가지고 정답을 제공하는 것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바뀌게 된다.

로저스의 논의와 함께 참고한 것은 사토 마나부의 논의였다.

〈로저스, 촉진하기〉¹⁰⁾



10) “밥 베이즈, 사람과교육 번역연구팀, 『교육학콘서트』, 사람과교육, 2018년, pp 80~81.”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 일치 : 자신에게 진실하고 나아가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 공감적 이해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

- 긍정적 존중 :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촉진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더 가깝다. 즉, 사람들이 서로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촉진'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교실의 통제자 또는 책임자가 아니라 교실의 촉진자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촉진 방법은 무엇일까?

- 시작할 때 수업 차시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라. 교육 참여자들을 대하는 교육 진행자의 태도가 교육 참여자들의 참여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교육 참여자들이 그 차시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기대하는 학습 결과에 대해 충분히 나누고, 기록하여 게시하라. (활동 중간중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

- 활용 가능한 학습자원을 미리 준비하라. (활동, 과제 등)

- 교육 진행자 스스로 교육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자원이 되어라.

- 교육 참여자의 마음으로 참여하라. 교육 참여자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교육 참여자가 활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내라.

- 학습 경험에 대해 교육 진행자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눠라.

-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의 한계를 기꺼이 인식하고 받아들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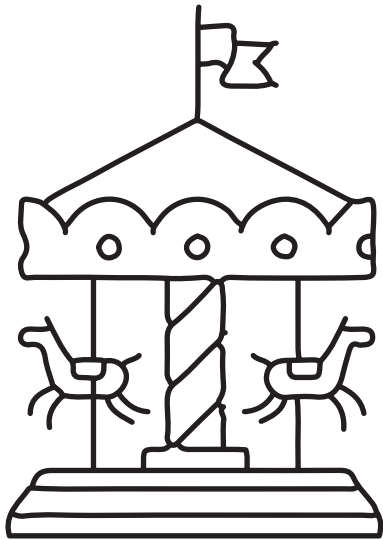
〈협동적 배움으로〉¹¹⁾

배움이라는 것은 대상(교재)과의 만남과 대화이고, 타자(친구들과 교사)와의 만남과 대화이며, 자기와의 만남과 대화이다. 우리들은 타자와 협동함으로써 다양한 사고를 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대상(교재)과 새로운 만남과 대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사고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음미할 수 있다.

협동적인 배움은 서로 배우는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서로 가르치는 관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서로 가르치는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이다. 협동적 배움이 집단 학습이나 팀 학습과 다른 점은 집단 학습이나 팀 학습이 집단 또는 팀에서 정리를 중시하는 것에 비해 협동적 배움에서 배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고, 모둠 활동 중에 결코 하나의 의견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모둠 내 개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배움은 동일성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은 차이에서다. 따라서 협동적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 학습이 팀 학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협동적 배움에서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협동적 배움은 개개인의 다양한 배움의 맞춤형이며, 어떤 학생이든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해야 한다.

왜 협동적 배움을 도입하지 않는 교사가 많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교사 대부분이 '수업' 전개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수업 목적을 학생 한 명 한 명 '배움'을 실현하는 것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은 '배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한 명 한 명 '배움'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수업'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11) 사토 마나부, 손우정 역, 『학교의 도전』, 우리교육, 2012년, pp 40~109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2.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사례, 1주차 (10월 12일~16일, 1회차/2회차 교육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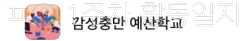
① 1주차 개요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10월 12일 월요일 1회차 프로그램 일정 안내, 교육 진행자 및 참여자 소개, 1주차 활동일지 작성법을 익숙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10월 12일 이전까지 만난 적이 없던 교육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교육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조 나누어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거 예산 교육에 대한 경험의 유무였다.

10월 16일 금요일 2회차 프로그램은 1주차 활동일지 작성한 내용을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핵심 활동이었다. 교육 참여자들은 1주차에는 4개의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했다. 교육 참여자 A~E가 1조(5명, 예산 교육 경험 있음)에 속한 교육 참여자들이고, F~I가 2조(4명, 예산 교육 경험 없음)에 속한 교육 참여자들이다. 교육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서 1개에서 4개까지 활동일지가 작성되었다.

교육 참여자 및 진행자의 소통과 활동일지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였다.

<오감만족 예산학교 페이스북 그룹 운영>



감성충만 예산학교

구로구에는 독특한 쓰레기통이 있네요~ 지자체마다 쓰레기통과 관련한 정책이 다 다른데 서울인터넷 기반의 쓰레기통으로 어떤 번신이 가능할까요? 사실 거리에서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 난감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어서;;



👍 5 댓글 5개 14명이 읽음

👍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댓글 1개 더 보기

- 제가 사진을 못찍었는데 이천시는 담배공초 쓰레기통에 찬반 여론조사가 가능하게 해놓기도 했더라구요

좋아요 · 답글 달기 · 4일 👍 2
- 압축 쓰레기통 좋네요 사람들도 똑똑해져야 할진대...

좋아요 · 답글 달기 · 4일 👍 1



감성충만 예산학교

병원앞 버스정류장 회색 철재의자가 따뜻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문구 '앉으면 따뜻해요' 저 한마디에 앉아보니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병원 앞 환자들이 주로 경유하는 길이니 이런 의자가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안내가 좀더 선명하게 보이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질것 같아요.




👍 4 댓글 1개 10명이 읽음

👍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 오옹 열선이 깔린걸까요? 궁금하네요

좋아요 · 답글 달기 · 3주 👍 1

 감성충만 예산학교

- 분이 올려주신 것이 있지만
- 시각에서 생각한 부분이라 올려봅니다.
- 모빌리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데 또 다른 타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보기



3

댓글 2개 11명0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저도 인도에서 너무 빨리 달리는 전동킵보드(?)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실제 사고가 난 것도 봤어요;;;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 답글 달기 · 4주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9658...>



MEDIAHUB.SEOUL.GO.KR

킵보드 무단 방치 그만! 지하철역 인근에 거처대 생긴다

좋아요 · 답글 달기 · 3주

② 1주차 활동일지

□ 1주차 활동일지 양식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width: 100%; height: 150px; margin-bottom: 10px;"></div> <p>- 교육 참여자가 이미지 제목 정하기</p>
<p>질문 던지고 정리하기</p>	<p>- 이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p> <p>- 이미지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할까요?</p> <p>- 이미지에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p>
<p>다른 교육 참여자 피드백 기록하기</p>	<p>- 이미지 관련해서 다른 교육 참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p> <p>- 다른 교육 참여자의 이야기들 중에서 내 생각과 이야기에 참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p> <p>- 내 생각과 이야기에서 추가되거나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기록하고 정리합니다.</p> <p>- 기존 내 생각과 이야기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강화되었다.</p>

□ 교육 참여자, 1주차 활동일지 작성 사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몇 일전 출근길에 보니 버스정거장 앞 도로가 불룩하게 올라와 있었다. 차가 다닐 때마다 파편도 날라 왔다. 안전상 위험해 보여 민원을 넣었다. 다음 날 그곳에 안전바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버스들이 이 안전바를 피해서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민원에 빨리 응답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안내문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정거장 바로 앞에 안전바만 세워놓는 것은 더욱 위험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도로 포장을 해서 안전바는 치워졌지만 포장폐기물이 아직도 보도에 방치되어 있다.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있어 예산이나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 임시방편이라도 좀더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조치하길 바란다.



보기에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정말 위험해보이네요. 절차가 있을 테니 즉시 해결은 불가하다 해도 시민들이 더욱 불안하고 위험하다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처해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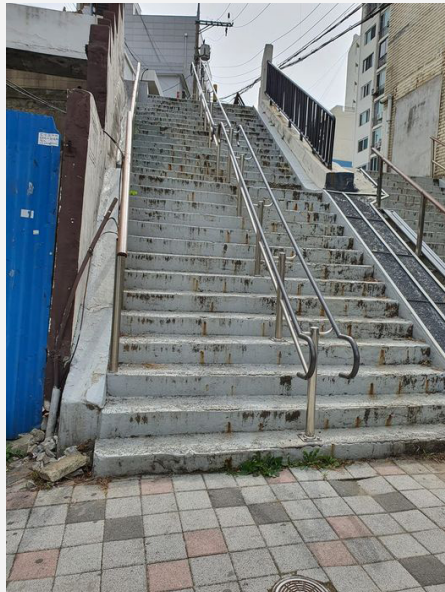


나도 앞으로 이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겠지~

우리 동네에는 이런 계단이 많아요. 얼마 전에 어르신이 힘들게 한 계단 한 계단을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시는 걸 봤는데 너무 불안하더라구요.

몇 십년동안 누군가에게는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번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겠지요.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되면 참 좋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에휴...보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공감합니다!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예산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발 삐끗하기 참 좋은 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색한 길이라는데 계단과 보도 색이 같아서 위험해 보인다. 이 길을 밤에 걷는다면 술이라도 한잔 하고 걷는다면 어떨까? 경사가 낮은 계단이지만 계단과 보도는 구분해서 도색하고 LED 등으로 경계도 표시하면 좋을 것 같다.



경사도가 있는 곳이라 계단과 보도 색 구분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아이고 정말 매직아이 같네요 ;;; 경사로 안전문제인데 좀 시급해 보여요 ;;; 계단도 안보이고 깨진 아스팔트도 보이고요 ;;;



금이 잔뜩 가있는 경사도가 왠지 위험해보이네요. LED 같은게 있으면 심리적으로 밤길 안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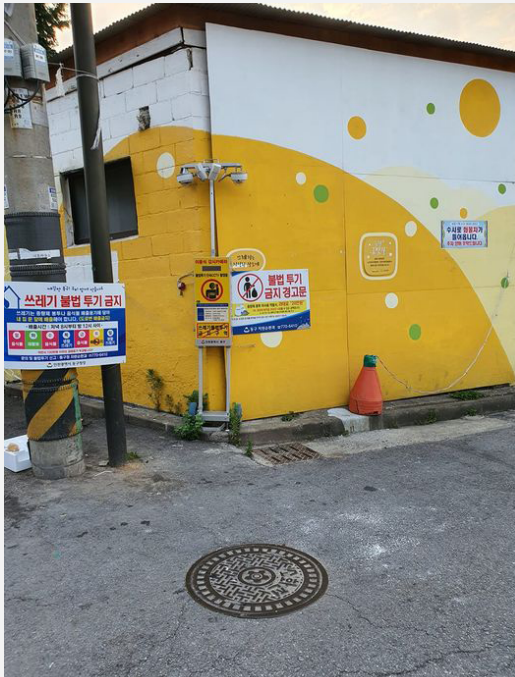


불법투기 금지도 보기 좋게~

동네마다 특정한 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한번 누군가 버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곳은 그래도 되는 곳이 되어버리죠. 이곳도 불법투기물이 많이 쌓이던 곳으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카메라도 설치한 곳인데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

안내판이 여기저기 부착되어 있으니 보기에는 별로네요. 벽화가 그려진 이곳에 어울리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안내문은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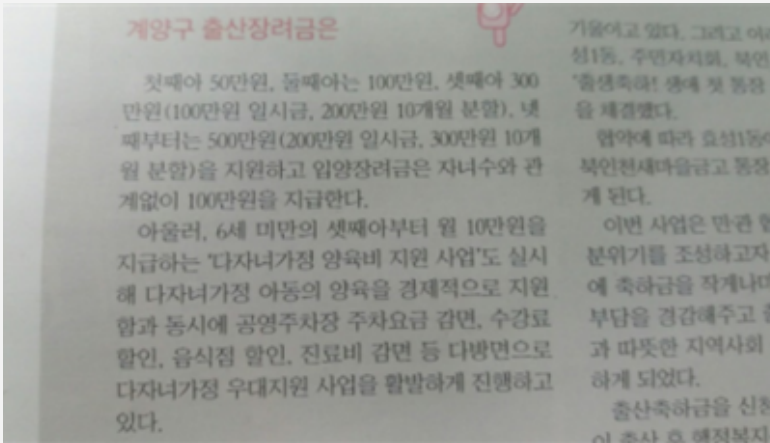
망원동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음성경고 시스템??을 설치했더라고요;; 안내판을 줄이는 대신 가까이 접근하면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동네 출산장려금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효성1동 마을 신문 내 출산장려금 지원정보)

이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효성1동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2~4회 발행하는 마을 신문(소식지)입니다.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 장려금은 자녀수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실어주셨네요.



이미지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 지원금은 계양구 출산 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양구 세출예산표를 보면 여성보육과 부서 /보육서비스지원정책/ 저출산 대책추진 단위/ 세부사업 중 출산축하지원금으로 19억 3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인천시는 19년 12월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네요.

인천시는 육아지원과 친출산환경조성정책 I-MOM출산축하지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9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시간이 없어 못 찾아 봤고요^^;; 모든 지자체에서 특히 농촌지역 일 수록 장려금의 지원액수가 경쟁적으로 많아지는데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둘째, 셋째로 갈수록 지원액수가 많아지는 걸까요? 하나 낳기도 힘든 세상 아닌가?

보통 가정의 경제력이 좋을수록 둘째, 셋째를 낳지 않나요?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제 정책으로 신생아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넣어두고 특정이율을 적용한 뒤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는 제도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 출산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도 궁금 하네요.

이미지에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마을신문에서는 이러한 계양구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개선 제안의 견도 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한 가족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나쁘지는 않지만 출산을 한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원을 했으니 책임은 너희 몫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발모양 스티커

요즘 인천지하철 2호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발모양 스티커가 군데군데 제작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에티켓 문화조성을 위해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궁금해서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요, 흠...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저 그림을 뭐라고 해야 찾을지 몰라서, 무작정 정보공개문서목록에 들어가 엑셀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ㅎㅎㅎㅎ

그런데 공개목록이긴 한데, 정보공개신청을 해야지만 볼 수 가 있네요... 서울시처럼 공개목록은 굳이 정보공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겠는데... 시간되는 대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고 '넋지'라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을 찾아서 이미지로 기록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개수

제가 출근하는 문화예술회관역이나 인천시청역의 계단 갯수는 어마어마 합니다. 늘 운동량이 부족한터라 운동한다는 모진 결심으로 한계단한계단을 오르죠. 예술회관역의 경우 11개의 출구가 있고, 제가 다니는 방향의 1,2,3,4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3번 출구에 1개 있습니다. 시청역은 시청방향 4번 출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매우 사용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하철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위치나 갯수를 정하는 기준, 근거가 궁금해지네요. 만약 모두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위치 표시판이나 안내표시를 통해서라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출구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위치 결정하는 방식이 궁금해요. 예전에 지하철을 만들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현재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추후에 만들어져서 공사도 새로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무단횡단, 무단횡단에 대한 대책

저희 집 앞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고, 속도제한 단속도 없어 때문 아우토반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들이 빛의 속도로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길 건너가 호수공원이라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호수공원을 건너는데 횡단보도의 간격이 매우 크다 보니 양쪽 신호가 끊겼을 때 중간으로 건너고 싶은 유혹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 아파트 주민들의 이해와 대안제시는 매우 여러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 우선, 어차피 양쪽 신호가 끊길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더 설치하자
- 육교를 설치하자
-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한편 속도제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자
- 무단횡단 위험성에 대한 경고판과 벌금부과 강화
- 의식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고 ...

놀랍게도 길가에 있는 아파트 주인은 자신의 집 앞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만들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편으로 모두 대책 제시에 대해 결사반대, 오로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욕만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일산호수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공론화 과정 기사들을 찾아보니 호수공원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개선의견들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시민친화적 호수공원 사용을 위해 도로 폭을 좁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불가능할 것 같아요ㅠㅠ), 아니면 횡단보도, 육교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지 고민이 되네요.





길에 용도가 다른 걸까요?

이 길은 담장 쪽 일부를 매년 포장하지 않는 곳입니다. 포장을 하지 않는 곳은 어떤 이유일까요, 도로가 아닌 인도여서일까요? 주민들은 이곳이 사유지라서 그렇다는 말도 하네요 ...

비가 많이 오는 말이면 포장 되지 않은 쪽은 빗물이 고여 보행에 불편함까지 줍니다. 생각보다 높이 차이가 크다보니 자칫 발을 빼긋하기 십상이기도 하지요 ...



저도 이런 비슷한 민원 봤는데요. 정말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특히 작은 골목길요. 10평 골목길에 5~6명의 소유주가 있는 곳이었어요. 주민들이 음푹 패인 곳 고쳐달라고 민원을 넣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더라구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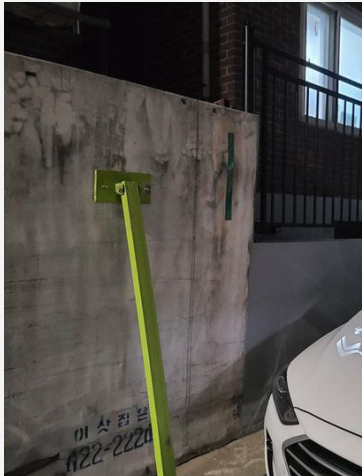
어 정말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차를 피할 때 정말 다치기 쉽겠어요 ;;; 도로 포장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높낮이가 조절될 수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



사유지에 예산 투입은 당연 안 된다?

빌라건축으로 인해 설치된 단독주택과 빌라 사이 담장이 15년째 언제 쓰러질지 모를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 빌라 거주민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는 빌라건축하면서 임의로 높여놓은 담장이다 ... 하루가 멀다하고 서로 책임을 물으며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는 곳입니다.

관에서는 사유지이니 공적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빌라주민들의 민원으로 담장수리지원 할 수 있으나 빌라주민들의 최소 50가구의 동의서가 있어야 1천만 원 이하의 담장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 얻기가 쉽지 않고 단독주택소유자는 담장공사 지원신청 자격자체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현상을 서로의 이기심이 낳은 것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런 ㅍㅍㅍ



이런 경우가 주택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사유지에 예산 투입하기 전에 동의서 등의 절차가 있는데 갈등으로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구요 ;;; 담장의 안전은 거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것 같은데 이해관계의 충돌이 어떤 연유로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



요즘 보험광고 많이 뜨네요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서민들에게는 보험이 쉽게 들어지지 않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개인이 보험을 든다는 것은 개인이 책임지는 거죠. 원래 보험의 취지는 사회가 함께 돕고 책임진다는 의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화재는 정부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Sponsored · 🌐

깜빡하고 안꺼낸 냄/난방기로
우리집은 물론 옆집까지 불탔다면?
우리집 화재피해도 막막... 계속 읽기

한화손해보험 세이프투데이생활중합보험

**우리집에서 난 불,
옆집으로 옮겨 불는다면? (특약)**

[보험료 확인 >](#)

M.HWGLKR/HOUSE
화재플랜 보험료 계산
한화손해보험 세이프투데이생활중합...

[더 알아보기](#)



동네 골목길 사이 좁은 틈에 한 평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빗물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텃밭 작물을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공동공간인데 초록 그물망과 펜스가 꼭 필요할까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기회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주민공동공간이라면 펜스 필요성이 궁금하네요 ;;; 텃밭 가꾸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구요 ㅋ



이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래된 도로를 단장 한 후 가로수를 정비했는데 보기좋은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관협력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화초가 등성등성이라서 '자라면 관찮겠지'했는데 자라고 나니 숲이 되어 더 지지분해 졌네요. 그리고 화단의 턱이 높아 지나가던 사람이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이미지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할까요?

주민들이 제안하면 이후 관리 문제도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또 주민이 낸 제안이니까 주민이 사후관리까지 해야 할까? 관은 책임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지에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책임에는 권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행정은 이후까지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주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한 사업이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해야겠죠.





너희 집은 어디니?

질문

어느새 눈에 익은 전동 모빌리티.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나도 한번 타볼까'를 생각하게 하는 요즘 핫한 이동기구인 것 같다. 얼마 전 버스가 끊긴 야심찬 밤에 여러 명이 이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보며 많이 부럽기도 했는데 ... 그 수가 많아져서인지 인도 여기저기 외롭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본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따릉이처럼 이 전동 모빌리티의 주차 공간이 있어 대여하기도, 반납하기도 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인도 여기저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곳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여 사업을 도입했으면 왜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은 것인지 싶다. 여기저기 인도에 흩어져 있는 전동 모빌리티의 문제는 정책을 도입하며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지 않은 문제일까? 아님 이용 주민들의 낮은 시민의식 때문일까? 궁금하다.

정리

행정이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일을 처리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행정은 그렇더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요즘, 사업 집행을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 전-집행 과정-집행 후, 그리고 2년 후 등 일정한 주기를 정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기반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서울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 키포드에 견인비를 무는 조례를 추진 중에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렇지만 조례 제정 여부와는 별개로 길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걸 줄일 수 있는 주차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많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통행도 가로막고 대책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진보니 오늘 지나가는 길에 딱 보이더라고요 ;;;



근데 이제 이걸 별도의 안전장비랑 면허같은 것도 없이 인도에서도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던데 ... 전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오늘 어떤 고딩들은 셋이 같이 타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던데 ... 살짝 딱 애기를 해보았습니다 ... ㅠㅠ



움직여야 무빙이지!

질문

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달아타는 환승역인 부평역의 무빙워크.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며 환승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부평역인데 지난 2년여 동안 이 무빙워크를 이용해본 건 5회를 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제 퇴근하며 안내 표시판을 통해 이용 가능 시간을 확인하니 하루 4시간. 나름 가장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시간에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 처음에 왜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루4시간을 작동시키려고 좌우 2~30미터의 무빙워크를 만들었을까? 들어간 예산도 만만치 않았을텐데, 인천 지하철을 만들면서 환승역이 되기 위해 나름 전략을 짰 것일까? 이왕 만든 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나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집행된 사업의 경우 그 후속은 어떻게 해야 할까? 등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유영한다.

정리

사업 시행 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 편의적으로 정돈되어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사업 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이용자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다.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든 이유는 단순히 편하게 빨리 가는 목적도 있겠지만 걷는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도구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라면 항상 운행해야 하는 것 아닐지요 ...



그렇네요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걸 설치한 거 같네요 ㅜㅜ



교통공사에 설치이유, 운행시간 제한 이유를 물어보고 싶네요. 에스컬레이터도 작동을 안하다가 사람이 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게 있던데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타면 그때만 작동되는건 어떨까 싶어요



5억 원의 가치

질문

예산을 보면 정책을 볼 수 있고 정책을 보면 그 사회의 가치판단 기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 봤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았다. 서울시에서 냉난방이 가능하고 공기청정기에 무선인터넷까지 가능한 버스정류소 10곳을 신설한다고 한다. 그 비용은 하나당 5억. 10곳에 설치한다고 하니 총50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50억을 좀 더 다르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지로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 쾌적한 버스정류소는 기분도 좋게 하고 때론 기분 환기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 재택 등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주거지를 개선하는데 예산을 들이는 것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누구나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한다지만 결정은 참 어려운 것 같다.

정리

인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많이 되고 있다. 참여예산을 안내할 때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그 해 또는 그 시기의 긴급함도 내용에 포함시켜서 주민참여제도가 지속성과 시급성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 했을 때는 사업 내용을 변경할지에 대한 공론장을 열어보고 주민과 함께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



작년 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위와 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시기와 적절한 배분 ... 예산집행의 유연성 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성장해야 할 건 제도일까? 사람일까?

질문

전철 안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 물론 의식있는(?) 나는 절대 이 자리에 앉지 않고 앉을 생각도 안 하고 때론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임산부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눈길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지만 ... 사람들이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적 마음들을 모아지도록 하기보다 제도로 빼박 해 버리는 걸 보면 '시민은 계몽의 대상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정리

이렇게 시민의식과 관련한 부분은 제도와 정책 시행에 앞서서 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이 먼저 되어서 사람들이 한번 즈음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



저도 절대 앉진 않는데 누가 앉는지 계속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한 갈등 기사를 접한 적이 많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홍제천 가을 꽃 축제

주민들이 산책길에 사진도 찍고, 보는 것도 즐거운 것이지만 ... 저 꽃을 심기 위해, 원래 있던 다양한 종류의 풀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는지. 이러한 꽃심기를 결정하는 행정부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예산집행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꽃을 가꾸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는데, 지나가다 예쁘다 정도의 생각만 하던 경치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식물들을 차라리 보기 좋게 가꾸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외래종 등 식생의 문제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미관을 위해 심어지는 꽃들을 보면 대부분이 색이 강렬한 외래종이 다분하다보니 저도 보면서 종종 저렇게 심어도 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꼭 외래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관을 위해 심는 꽃이다보니 한철만 보고 계속 바뀌주어야 하니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관리가 쉽고 외래종이 아닌 식생을 고민해서 심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폐복에도 답글을 단 것처럼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라리 길가에 자생하는 초목들을 관리하고 외래종이나 생태교란종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물다양성과 외래종에 대한 문제는 정말 탁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식물도 생명인데 경관 조성도 좋지만 큰 예산을 들여서 매년 반복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가 진정되어야겠지만요 ;;;



저도 핑크물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공감이 많이 가네요.



10분에 한 대 정도 오는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폰 무료충전기가 두 대나 있어요. 선은 본인이 갖고 와야 하는데요 ... 제가 이곳을 지나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는 한 번도 이용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버스 타려는 분이 충전을 할까요? 제가 본 곳은 이곳 뿐인데, 왜 이곳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것도 2개나 ... 1개당 2대씩 충전이 되는데 ...





가끔 충전이 급할 때가 있는데 버스 기다리는 짧은 시간동안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선생님 말씀처럼 주민이 많이 모이거나 이용하는 곳에 있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 시설물 설치할 때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아보면 좋겠어요 ~



저도 지나다니면서 별로 본적은 없는데, 서울은 특히 버스가 자주 오가는데 효용성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차라리 시민들이 시간을 두고 머물 수 있는 공원이나 간이쉼터 같은 곳이 저 사업에 더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요즘 보조배터리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



정말 굳이 두 개씩이나 필요해보이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도통 모르겠네요. 그리고 충전기도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충전기가 고장나고 할텐데, 그런 관리 역시 제대로 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 정말 설치 기준이 궁금해지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돼서 곤란을 겪은 분이 선정한 위치일까요? 스마트폰 무료충전기는 차라리 공공도서관이나 학생들 학교 근처 정류장 같은 곳에 있으면 유용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가 1% 남았을 때의 초조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 꼭해야 5분 충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정책상 점점 전기충전소가 많아지겠고, 의무화 될 예정이지만 ... 아파트 내에 지원받아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있어도 주민들의 동의를 못 얻어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꽤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도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도 고민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 반대하시는 이유는 말씀해 주신 내용만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더욱 무료로 지원해주는 데, 공고에서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 하면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파트입주자 회의 이런 곳에 가서 설명회를 연다는가 ...



수소충전소 설치로 인한 갈등은 들어봤는데 전기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한 인식은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전기차충전소 설치만이 아니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란 곳이 정책상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전기차 비중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텐데, 기회가 있을 때 아파트 내에 설치해도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도 공감이 됩니다. 전기차가 많이 많은데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품이 들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전기충전소 무료설치 사업이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동 모빌리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타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규제가 있으나 이용자들은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는 것도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약자 관점에서 장애인들, 특히 청각 시각 장애인에게 이 모빌리티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차도에서만 타야하는데 인도에서 타는 분들에 대해 방치중인 지자체 ... 관리인력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서비스에 대해 ... 사고나 사고가 생기지 않더라도 장애인분들이 놀라는 (비장애인이 놀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을 모른 척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너무 빨리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요 ㅎ 한번은 실제 사고가 난 것도 봤어요 ㅎ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역을 다니면서 이 전광판을 보면서 늘 궁금했다. 꽤 많은 비용이 투입 되었을텐데 왜 늘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아래 LED 전광판에 나오는 화면은 무슨 기준으로 누가 송출을 하고 있는걸까? 이렇게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다.



오, 신기하네요 ㅋㅋ 지하철 전광판을 자세히 본 적도 없어서 ㅋㅋ 어떤 용도로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전광판의 용도가 뭘까요 ...



광고판인데 아직 광고주를 못 만난 것 같아요.



오 광고가 비는 시간이 많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 좋겠네요



전선지중화 사업이 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는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전신주와 전선들이 많네요. 잘린 전선이 나 늘어진 전선들이 사람들 손이 닿는 곳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씩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늘 보며 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 얽혀있는 전선, 통신선을 보면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주 가파도같이 전선 지중화 사업한 곳을 갔을 때 청량한 느낌의 하늘을 잊을 수가 없네요;;; 도심의 지중화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도시미관과 안전(작년 고성화재도 전신주에서;;;)을 고려해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육교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오래 전에 환경보호를 주제로 벽화를 그렸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칠이 벗겨지고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칠을 새로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육교가 철거 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터라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육교가 언제 철거될 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흉물스런 벽화를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육교 철거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알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관리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공공기관도 무인 키오스크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네요. 하지만 키오스크가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에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키오스크의 도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까지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니 만큼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시민들이 없어야 하니까요.



완전 공감합니다



서울시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서 골목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가득합니다. 가뜰이나 좁은 골목에 차들까지 주차되어 있으니 통행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끔 아찔한 상황도 마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주차문제가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예산사업으로 풀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면 지금보다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골목 옆 건물에는 낮 시간이라 주차공간이 행하니 비어 있는데 이런 시간대만이라도 공간을 나누거나 아예 건물거주권과 주차권을 나누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거주자주차 신청하고 1년을 대기 중입니다. 빈곳이 보이는데 ...



공감 백배요. 골목마다 주차는 늘 전쟁인데 그렇다고 마땅한 해결방법도 없는 ㅠㅠ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반짝반짝 LED 횡단보도

밤이면 깜박깜박 빛을 내는 LED 조명이 횡단보도 양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차량 운전자는 처음 이곳을 지나가더라도, 밤이 늦은 시각이더라도 이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심하겠죠. 바닥만 보고 걸어다니는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의 존재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덕분에 사고 예방률은 높을 것이라 기대되지만, 지나치게 깜박거리는 밝은 빛이 눈부시다며 눈을 찌푸리고 건너가는 보행자분들도 왕왕 보입니다. 또한 LED 조명의 고장이나 교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횡단보도는 효과적인 예산 사용의 방식이라 볼 수 있을까요? 점차 확장되어 갈 수 있는 횡단보도일까요?





오 전 처음 보는 횡단보도인데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좋은 정책 같아요~ 특히 오래된 횡단보도는 운전자에게 잘 안보이기도 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가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매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정책이네요. 눈이 부신 부분은 조도를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제안해 봅니다. 요즘 빔공해로 공공시설은 조도를 많이 낮추더라고요.



저도 좋아 보이네요. 안전도 생각하고 눈에 피로가 덜 가는 색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의 사례가 궁금하네요~ 눈부신 부분은 매립등?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밤에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리만 잘 된다고 한다면 조도를 조절해서 산책로나 등산로 등에도 활용하면 어떨까요?



만약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잘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형광페인트로 대체하는 건 안 될까요? 은근 광해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신경쓰일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런 횡단보도를 처음 봐서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요 ...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이게, 센서가 아주 예민해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 ㅠㅠ 다른 방법으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LED 등이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로 보이는데, 주기적으로 LED 등을 관리하거나 교체하는 부분만 잘 관리가 되면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각도에서 현상들을 바라보시는 것들이 인상 깊고 좋습니다. 예산이 과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보여도 한 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줄어든다면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리풀 원두막

지나가다 한 번 본 기억이 있던 파라솔 비슷한 것. 찾아가 자세히 살펴보니 서리풀 원두막이라 하여, 횡단보도 불이 바뀌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늘 아래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네요. 겨울에 눈이 오거나 태풍으로 바람이 심할 때는 접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 추세인만큼, 신호가 바뀌는 텀이 긴 횡단보도 밑에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더위를 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한 방편으로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자치구도 횡단보도마다 있어요. 좋은 정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설치된 곳이 보이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보행 신호 기다리면서 다리가 아프실 수 있어 장수 의자도 설치하던데 두 사업이 결합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디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이 우수사례로 퍼진거라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인가 ... 그리고 방수되는 재질로 해서 악한 비가 올 때는 비가림막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긴 건 우산인데 방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리풀 원두막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따뜻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신호가 길어 무릎이 아프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서리풀 원두막이 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위를 피하게 하는 방법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접어두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요. 겨울엔 비닐하우스 같이 생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러한 노력의 모습은 주민이 봐도 만족할만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그늘막을 잘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늘막을 접어서 겨울에는 전구를 달아서 트리처럼 쓰더라고요. 여러모로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옐로카펫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고안한 등하굣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이라고 해요. 횡단보도 앞 어린이들이 대기하는 곳을 노란색 밝은 색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아이들을 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답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오히려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요. 제가 찾은 옐로카펫은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기사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옐로카펫은 어느 곳에 깔렸는지에 따라 관리 상태가 제각각이며, 몇몇 곳은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탓에 쓰레기가 버려진 흉물로 변해버렸다고 해요. 이런 시설은 과연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옐로카펫 사업에 대해 잘 몰랐는데, 지금 말씀해주는 것 들으니까 뉴스를 찾아보니 아직 인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더불어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더욱 많이 만든다면 원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옐로카펫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자제하지 않을까요?



옐로카펫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장치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색이 바래서 효과가 없고 미관만 해칠 것 같네요. 저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관찰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옐로카펫에 대한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옐로카펫이 있는 곳에서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여도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테니 옐로카펫 주변의 쓰레기 정리 혹은 옐로카펫이 색이 바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칠을 해주는 등의 관리가 절실히 보여요.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몇 년전부터 보여서 뭐지 했는데, 최근엔 많은 곳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건지 낮에는 그 효과를 알진 못하겠더라고요. 무엇이든 만드는 것보다 관리가 어려운 일인데, 관리까지 신경쓰고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심! 보행자 보호 안내

어느 순간부터 길가에 펜스와 함께 보행자 보호가 쓰인 얇은 판이 생겼습니다. 밤에도 잘 보이게 야광처리가 된 듯 보이며, 학교 근처 구역에만 일정 거리를 두고 늘어져 있어요. 운전자 입장에서 눈에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예산 사용이 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 않을까요?



학교 주변 속도 제한이나 갑자기 뛰쳐나올 수 있는 아이들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안전 관련한 안내판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운전자 시각에서 표지판이 더 눈에 잘 보여야할 것 같았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③ 1주차 교육 참여자 활동 소감나누기



"사실 수업 이야기를 들었을 땐, 이렇게 뭔가 쌍방소통적인 느낌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점이 신기했어요. 앞으로 잘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네의 이 곳 저 곳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또 기대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길 권하고 다녀왔는데, 이번엔 제가 주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이게 예산 낭비일까?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걸까? 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예산'하면 '예산낭비'와 주로 연관해서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이 다른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저도 이런 교육방식은 처음이라서 낯설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일주일이 너무 바쁜 와중에도 사례지 매일 작성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리하면서 한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해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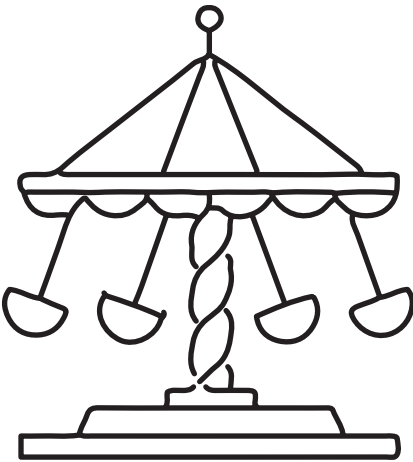


"저는 평상시에 주변을 잘 안 둘러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활동사례지 작성 때문이라도 의도적으로 주변을 살펴보니깐 생각보다 지자체 혹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게 일상에도 많이 녹아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서로 발견한 문제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기도 하고, 문제에 함께 공감하기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 서로 공감하는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충분히 의미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3.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사례, 2주차 (10월 19일~23일, 3회차/4회차 교육 진행)

① 2주차 개요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10월 19일 월요일 3회차 프로그램은 2주차 활동일지 작성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2주차 활동일지는 1주차 활동일지보다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했다. 따라서 교육 참여자들은 1주차 활동일지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지, 새로운 이미지를 포착해서 2주차 활동일지를 처음부터 작성할 지를 교육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결정했다.

2주차 프로그램의 핵심은 개인적인 가치와 선호를 집단적인 가치와 선호로 전환시키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3주차 프로그램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 참여자의 개인적인 가치와 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집단적인 가치와 선호로 전환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일방적인 공동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개인 모두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교육 참여자는 2주차 활동일지를 2개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서 1개~2개 작성되었다.

2주차 활동일지는 교육 참여자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공동의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교육 참여자들의 사전 점검 및 확인 과정이었다. 1주차 활동일지와 비교해서 2주차 활동일지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자 개인별로 활동일지 작성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1주차 활동일지와 비교해서 2주차 활동일지는 교육 참여자 사이의 소통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2주차 활동일지가 작성되고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기회에 소통이 진행되었지만, 작성 과정에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10월 19일 월요일 3회차 프로그램은 '달 생존 게임'를 통해서 개인적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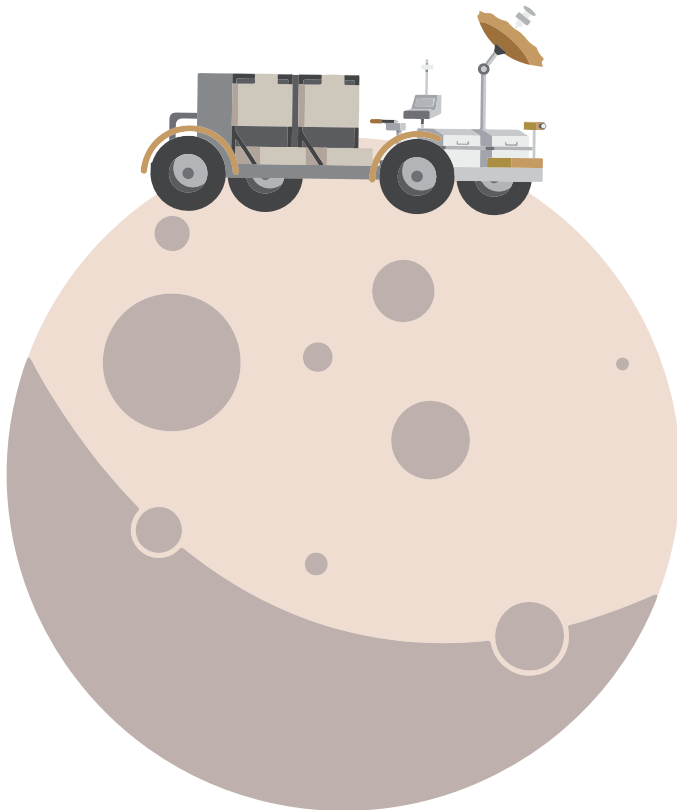
치와 선호를 집단적인 가치와 선호로 전환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달 생존 게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달 생존 게임에서 유의할 점은 조별로 다수결이나 평균 등의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 달 생존 게임에서 결정은 전체 합의와 동의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 참여자 개인이 집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인의 가치와 선호는 존중되었지만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프로젝트에서의 집단의 가치와 선호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달 생존 게임, 이해하기

- 상황 : 50km 떨어진 우주선에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월면차에는 15개의 물건이 있다.
- 과제 : 15개의 물건의 중요도에 따라 순위 매기기(가장 중요한 것부터 1~15위)
- 월면차의 물건 15개

성냥 1통, 농축 식품, 나일론 밧줄(15m), 불투명 낙하산, 휴대용 태양전지식 히터, 권총 2정, 분유 1상자, 50kg 산소통, 달에서의 별자리 지도, (가스가 든) 구멍 고무보트, 물(20L), 자석, 조난 구조 신호등, (주사침이 붙은) 구급상자, 통신용 FM



<1조, 달 생존 게임 결과(개인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B	산소통	물	별자리 지도	통신용 FM	농축식품
C	물	농축식품	나일론 밧줄	별자리 지도	산소통
D	농축식품	산소통	별자리 지도	조난구조신호등	낙하산
E	별자리 지도	산소통	통신용 FM	물	조난구조신호등

<1조, 달 생존 게임 결과(공동)>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집단	산소통	물	별자리 지도	농축식품	통신용 FM

<2조, 달 생존 게임 결과(개인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G	산소통	물	별자리 지도	휴대용 히터	조난구조신호등
H	산소통	물	농축식품	별자리 지도	조난구조신호등
I	산소통	농축식품	물	별자리 지도	휴대용 히터

<2조, 달 생존 게임 결과(공동)>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집단	산소통	물	별자리 지도	분유	통신용 FM

10월 23일 금요일 4회차 프로그램은 3회차 프로그램의 '달 생존 게임'를 참고하여, 2주차 활동일지에서 교육 참여자 개인별로 공동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좋을 내용을 발표하고, 교육 참여자의 집단적인 속의 과정을 통해서 3주차 공동의 프로젝트를 결정하게 했다.

1조는 2주차 활동일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1순위와 2순위가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 1조의 공동 결정에서 재미있는 내용은 1순위는 3주차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2순위 사업은 참여예산이나 기타 민원 또는 청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결정된 것이다. 현재 2순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1조, 공동 프로젝트 결과〉

구분	1순위	2순위
A	전동 키보드 사회적 합의	동암역 굴다리
C	전동 키보드 사회적 합의	동암역 굴다리
D	전동 키보드 사회적 합의	동암역 굴다리
E	전동 키보드 사회적 합의	동암역 굴다리
공동 프로젝트	전동 키보드 사회적 합의	동암역 굴다리

2조는 2주차 활동일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결과적으로 공동 과제는 '꽃길'이 결정되었다.

〈2조, 공동 프로젝트 결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F	꽃길	전선관리	옐로카펫
H	활주로형 횡단보도	꽃길	전선관리
I	꽃길	활주로형 횡단보도	전선관리
공동 프로젝트	꽃길		

② 2주차 활동일지

□ 2주차 활동일지 양식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0f0f0;"> <p>교육 참여자가 포착한 이미지 넣기</p> </div> <p>- 교육 참여자가 이미지 제목 정하기</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사실적 사고</th> <th style="width: 33%;">추론적 사고</th> <th style="width: 33%;">비판적, 창의적 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100px; vertical-align: top;"> <p>이미지에서 기분(느낌)과 이유 기록하기</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내 생각(인지)의 원인 및 근거 기록하기</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내가 바라는 변화 기록하기</p> </td> </tr> <tr> <td style="height: 100px; vertical-align: to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기 때문인 것 같다.</p> </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기 때문인 것 같다.</p> </td> </tr> <tr> <td style="height: 100px; vertical-align: to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변화기록).</p> </td> </tr> </tbody> </table>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에서 기분(느낌)과 이유 기록하기</p>	<p>내 생각(인지)의 원인 및 근거 기록하기</p>	<p>내가 바라는 변화 기록하기</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변화기록).</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에서 기분(느낌)과 이유 기록하기</p>	<p>내 생각(인지)의 원인 및 근거 기록하기</p>	<p>내가 바라는 변화 기록하기</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변화기록).</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 정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량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 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작성한다</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 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p>- 이미지와 관련해서 다른 교육 참가자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p> <p>- 다른 교육 참가자의 이야기들 중에서 내 생각과 이야기에 참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p> <p>- 내 생각과 이야기에서 추가되거나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기록하고 정리합니다.</p> <p>- 기존 내 생각과 이야기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강화되었다</p>

□ 교육 참여자, 2주차 활동일지 작성 사례

A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1.

구분	내용
이미지 기록하기	 <p data-bbox="342 850 471 875">-도심 속 동굴</p>

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 과 이유를 구체적으 로 기록하기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30m 정도의 보도인데 좁고 어두워서 무섭다.	전에 이 길을 지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 가 들렸다. 순간 오싹 해지면서 엄청 날치기 라도 당할까봐 엄청 무 서웠다.	LED 등 설치, 환하고 쾌적한 보도가 되면 좋 겠다.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기분(느 낌)을 가지게 되었다.	길을 지나면서 두려움 이 먼저 생겼으나 이 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방치한 것에 기분이 나 빠지고 짜증이 났다.	길을 보수하고, 사람들 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로 교체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짜증)이라는 기분(느 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		
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	보도길이 30m, 전등 5개 정도		
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동암역 굴다리 보도, 옆에서 차들이 다녀서 굴 안으로 들어가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길을 보수하자는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 - 이 길에 전등을 왜 몇 개밖에 안 될까? -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 		
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			

A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2.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data-bbox="363 310 771 813"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339 849 550 875">-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p>

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계단이 가파라서 힘들다.	나도 올라가기 힘들고, 어르신들은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힘들게 오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힘듦)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외감)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변화기록).	“누군가에게는 빠른 길, 누군가에게는 길이어도 길이 아닌 돌아갈야 하는 길”이라는 글을 보면서 소외감이 생 각났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	40계단, 가운데 한 개의 자전거 레일이 있다.		
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건너편에도 이런 계단이 있다. 몇 십년동안 있는 계단, 주변 쓰레기도 많다. 그래도 이 계단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름길이다.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려는 노력이나 의견이 있었을까? -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 		
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			

B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1.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p>The content area contains three images. On the left is a photograph of a subway station escalator with people using it. In the middle is a photograph of a staircase with a metal handrail. On the right is a map of a city street grid with a red location marker and a blue line representing a transit route.</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 과 이유를 구체적으 로 기록하기</p>	<p>사실적 사고</p>	<p>추론적 사고</p>	<p>비판적, 창의적 사고</p>
	<p>지하철은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교통약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사용하기 불편한 요소가 많다.</p>	<p>지하에서 지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복잡한 출구와 이동거리, 계단을 거쳐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염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p>	<p>정기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p>
	<p>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설치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p>	<p>역사 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준과 내용대로 행정이 집행한다. 그러면 법률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기준선이 되어야지,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p>	<p>교통약자 이용시설 설치예산편성시 주민, 교통약자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반영절차 마련, 당사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 사항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의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p>

제10조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15조는 도시철도의 이용보장에는 차량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에는 대상시설별 이동편의 시설의 종류 표기

대상시설	여객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매개시설			장애인 전용화장실								
	보행 접근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이력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바.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가)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여객시설 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지상에서 대합실까지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사. 에스컬레이터

1) 설치 장소

- 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 보도 여건 및 승객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나) 내부 계단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효폭 및 속도

- 가)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가)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단

1) 계단의 형태

- 가)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지하철역사내 이동경로와 편의시설이 안내되어 있음(예술회관역)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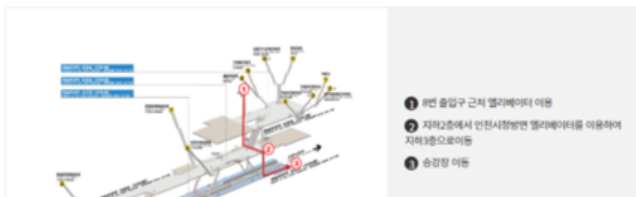
호기	운전구간	탑승정원(인)	비고
1	승강장(8F)↔대합실(1F)	15명	
2	승강장(8F)↔지하2F	15명	8번출구

에스컬레이터

8	대합실(1F)↔외부(1F)		3번출구
---	----------------	--	------

이동경로는 매우 복잡하며, 지상으로 연결된 정보는 없음

[출입구→승강장] 8번 출입구 근처 엘리베이터 → 인천시청 방면



- ① 8번 출입구 근처 엘리베이터 이동
- ② 지하2층에서 인천시청방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3층으로 이동
- ③ 승강장 이동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상기 법률에 근거(7조)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3차(2017~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 2020.5.27) 올해 만들어졌네요 - 인천교통공사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료 발췌 <p>인천지하철 1호선 예산규모 168,134백만 원(인천교통공사예산의 52.8%), 인천지하철 2호선 예산 규모 95,628백만 원(인천교통공사예산의 30%),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고객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 인천 시청 E/V 1대 및 예술회관 E/S 2대, 시비3842백만 원 확보 후 추진)/ (지하철 안대시설 시인성 향상, 역사 통합안내체계 개선 : 승강장 안내문 역명판 및 방면안내판 개선(1호선 29개역),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변경에 따른 노선도 정비)</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인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의 주민과 당사자 의견반영이나 만족도 조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함</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C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1.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p>- 도로 포장의 목적은 무엇인가?</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p>이 도로를 보면 한심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포장 하지 않는 곳과 포장된 곳의 용도가 같은데 일부만 포장했기 때문이다.</p>	<p>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곳은 포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다.</p>	<p>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는 곳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모드를 위해서라도 전부 포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유지에 대한 기준이 구분되어 공공성에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해두면 좋겠다.</p>
	<p>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p>	<p>행정편의에 의한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다.</p>	<p>사유지에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면, 도로와의 별다른 경계를 두는 조치를 취하거나, 주민조사를 통해 동의를 얻고 도로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오랜 기간 도로로 활용된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여 포장하면 좋겠다.</p>
	<p>길을 걷다 발을 헛딛다가 다칠까봐 조마조마해진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p>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공 2006.6.15.(252),1030]</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C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2.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data-bbox="426 341 882 812"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342 889 627 914">- 저녁 뉴스에 출현하고 싶나요?</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p>사실적 사고</p>	<p>추론적 사고</p>	<p>비판적, 창의적 사고</p>
	<p>담장이 오늘이라도 담장 쓰러질 것 같은데,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안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최근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담장에 훼손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p>	<p>- 담장의 소유가 정확히 빌라와 단독주택 소유주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 및 설치공사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p> <p>- 단독주택은 4가구의 동의만 구하면 되지만, 빌라는 총 200여 가구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부터 쉽지 않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p> <p>- 주체적으로 나서서 서류를 준비할 주체가 없는 상태임.</p>	<p>- 빌라 대표자와, 단독주택 4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함께 논의하는 주민모임이 구성되면 좋겠다(담장철거 및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조사, 동의서 등의 서류작성, 공사 계획 설계 및 업체선정 등).</p> <p>- 담장측량(담장소유확인) 정도는 행정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민민간의 공동해결을 위한 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p>
	<p>단독주택과 빌라주민들이 서로 문제만 지적하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않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고 알밋다.</p> <p>민과 민 사이, 민과 관 사이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무관심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막막하고 슬프다.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된다.</p>	<p>불안하고 불편하지만 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 같다. "설마 무너지겠어?", "내가 지나가다가 쓰러지지 않겠지" 라는 안전불감증의 만연함도 한몫을 하고 있다.</p>	<p>재안안전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성 복원을 위한 제도에 대한 인내가 좀더 구체적이고 친절해야 민민갈등도 줄어든고, 제도활용도 적극적일수 있겠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경계측량은 공인기관, 즉 지적공사나 출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담장은 공유에 속한다. 새로이 축조하거나 할 경우 그 비용은 연접한 소유자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축조할 위치를 확정할 경계측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자의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민법 제2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p> <p>[출처 : http://archilaw.tistory.com/entry/담장이-경계선인가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블로그)]</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D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1.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data-bbox="472 341 836 813"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338 829 805 857">- 저 의자는 차가울까? 따뜻할까? (냉정과 열정사이)</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p>사실적 사고</p>	<p>추론적 사고</p>	<p>비판적, 창의적 사고</p>
	<p>버스 정류장 의자</p>	<p>떨렁해</p>	<p>에스컬레이터 설치</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차갑고 먼지 많은 의자)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한쪽 면의 안내 문구를 발견, 정말 따뜻할까? 앉아볼까?)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 기록)</p>	<p>그 원인과 근거는 ‘앉으면 따뜻해요’ 안내 문구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긍정적 이미지를 포함한 안내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 이 동네 이런 의자도 있군! 제법인걸!</p> <p>- 역시 홍보는 중요해</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추운 날씨에 어르신들과 환자가 많이 다니는 병원 앞 정류장이다.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의자가 무엇보다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바람 불고 움츠리고 서 있었는데 어두운 회색의 철재 의자는 정말 앉고 싶은 생각이 1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잘 안 보이는 안내문구라도 그 문구 덕분에 알게 되었고(안내, 홍보의 중요성), 정말 앉자보니 따뜻했다. 모든 병원 근처의 정류장에는 이 의자가 꼭 필요할 것 같다.</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 저 의자의 소재는 선명한 안내문구 설치가 어려울까? 어떤 방법으로 따뜻한 이미지의 홍보가 가능할까? 좋은 의자를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따뜻한 의자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다.</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p>겨울철에 앉기에는 약간 주저되는 의자입니다. 안내 문구가 없으면 다들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성 안심벨 관련 여성 분들이 동네에 여성 안심벨이 너무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여성 안심벨이 있다는 글자를 바닥에 크게 보여주거나 LED로 표시해서 밤에도 잘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p>		

E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1.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너희집은 어디니?</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33%;">사실적 사고</th> <th style="width: 33%;">추론적 사고</th> <th style="width: 33%;">비판적, 창의적 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2 971 545 1127"> <p>개인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이동기구를 공유할 수 있다니 신기하고 재밌다.</p> </td> <td data-bbox="553 971 757 1154"> <p>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데 가끔은 전철역 또는 버스 정류소까지 걸어가기에 애매한 거리이고, 때론 걷는 게</p> </td> <td data-bbox="760 971 977 1154"> <p>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면 좋지만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p> </td> </tr> <tr> <td data-bbox="342 1159 545 1328"> <p>생각보다 많은 인도 여기자기에 놓여있는 걸 보며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td> <td data-bbox="553 1159 757 1343"> <p>너무 힘든 날이 있는데, 그런 때 뭔가 이동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p> </td> <td data-bbox="760 1159 977 1343"> <p>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질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거치대나 거치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p> </td> </tr> </tbody> </table>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개인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이동기구를 공유할 수 있다니 신기하고 재밌다.</p>	<p>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데 가끔은 전철역 또는 버스 정류소까지 걸어가기에 애매한 거리이고, 때론 걷는 게</p>	<p>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면 좋지만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p>	<p>생각보다 많은 인도 여기자기에 놓여있는 걸 보며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p>너무 힘든 날이 있는데, 그런 때 뭔가 이동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p>	<p>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질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거치대나 거치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개인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이동기구를 공유할 수 있다니 신기하고 재밌다.</p>	<p>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데 가끔은 전철역 또는 버스 정류소까지 걸어가기에 애매한 거리이고, 때론 걷는 게</p>	<p>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면 좋지만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p>										
<p>생각보다 많은 인도 여기자기에 놓여있는 걸 보며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p>너무 힘든 날이 있는데, 그런 때 뭔가 이동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p>	<p>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질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거치대나 거치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스트마일' 이동수단 - 킥보드 3대 업체 : 킥고잉 vs 빔 vs 라임 - 이용방법 : 모바일 설치→회원가입→운전면허증과 요금결제용 카드 등록 - 이용요금 : 기본료 1000원, 5분 이후 추가요금 1분당 100원 - 정기적으로 킥보드를 일괄 회수해 충전 및 정비 진행, 거치대 X (반납은 건물 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세워 놓으면 되기 때문)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부터 스타트업들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중→서비스 허가를 내줄 때, 이용자 외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안내 또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 국내 법규 상 최고 시속 25km.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 도로를 분명히 해줘야 하지 않을까?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시범사업으로 지하철역 1~5개역 주변에 거치대와 충전시설 설치 예정→서비스는 사기업에서 제공하는데, 왜 거치대는 공사에서 설치를 해주는가?


E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2.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p>- 성장해야 할 것은 제도일까, 사람일까?</p>

구분	내용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해당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눈에 띄게 표시를 해놓으니 좋다고 생각했다</p> <p>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철에 임신부 배려석이 마련되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앉아있는 임신부도 눈치 보는 것 같다.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용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다.</p>	<p>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이 부족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접근은 문제가 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이를 인정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의 문화는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p>	<p>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지 않더라도, 하물며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파고든 작은 가시에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든 그걸 꺼내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새로운 생명을 안고 생활하는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습득되는 것일까?</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통상적으로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 보다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p>		

<p>이미지와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 임산부 배려 지정석의 시작 : 2013년 10월 10일</p> <p>□ 운영현황</p> <p>○ 설치현황 (19.1월말 기준, 단위:명)</p> <table border="1" data-bbox="341 308 981 381"> <thead> <tr> <th>조선</th> <th>설치대상</th> <th>설치수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8호선 전동차</td> <td>3,570</td> <td>7,140</td> <td>향당 2석 설치 (중앙좌석(7인)의 양 끝쪽 2자석)</td> </tr> </tbody> </table> <p>○ 운영내용 : 객실의자 색상(핑크색), 열분할 및 배역 표지 부착</p> <div data-bbox="341 430 776 511"> </div> <p>○ 초 보 : 동영상 매체, 차내방송, 온라인미디어 등 활용 "배려두기" 홍보 실시</p> <div data-bbox="341 544 776 641"> <table border="1"> <thead> <tr> <th>1) 안내방송</th> <th>2) 동영상 표출</th> <th>3) 미디어 홍보</th> <th>4) 캠페인 시행</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극 안내방송 열차극 안내방송 기관사 육성 안내방송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극 동영상 매체 열차극 동영상 매체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미디어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인구보건진흥원 등 관련 기관 공동 </td> </tr> </tbody> </table> </div> <p>- 2018년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 건수 : 2만7589건(하루 평균 75건)</p>	조선	설치대상	설치수량	비고	1-8호선 전동차	3,570	7,140	향당 2석 설치 (중앙좌석(7인)의 양 끝쪽 2자석)	1) 안내방송	2) 동영상 표출	3) 미디어 홍보	4) 캠페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극 안내방송 열차극 안내방송 기관사 육성 안내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극 동영상 매체 열차극 동영상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미디어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인구보건진흥원 등 관련 기관 공동
조선	설치대상	설치수량	비고														
1-8호선 전동차	3,570	7,140	향당 2석 설치 (중앙좌석(7인)의 양 끝쪽 2자석)														
1) 안내방송	2) 동영상 표출	3) 미디어 홍보	4) 캠페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극 안내방송 열차극 안내방송 기관사 육성 안내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극 동영상 매체 열차극 동영상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미디어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인구보건진흥원 등 관련 기관 공동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사회적 예의와 배려, 가치와 덕의 문제와 규범 vs. 제도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F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1.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42 716 550 776">사실적 사고</th> <th data-bbox="550 716 758 776">추론적 사고</th> <th data-bbox="758 716 973 776">비판적, 창의적 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2 776 550 1161">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예산상비)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자연훼손)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 기록)</p> </td> <td data-bbox="550 776 758 1161"> <p>그 원인과 근거는 (자연생태보호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인 것 같다.</p> </td> <td data-bbox="758 776 973 1161"> <p>(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td> </tr> </tbody> </table>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예산상비)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자연훼손)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 기록)</p>	<p>그 원인과 근거는 (자연생태보호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예산상비)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자연훼손)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 기록)</p>	<p>그 원인과 근거는 (자연생태보호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만족하는 주민들이 많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보기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 매년 자생적인 토종 식물을 없애고, 거액의 예산을 소진한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라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 모임에서는 자연 초본을 활용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어느 기준으로 방침을 세우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p>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이러한 꽃들을 심으면 좋아할 것이다. 지자체의 다양한 꽃 축제들이 그렇게 사람을 모으면 성공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이 맞는지 한번쯤은 고민하고 공론장 등을 활용해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미래 세대까지의 환경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면 좋겠습니다.</p>

F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2.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42 716 546 776">사실적 사고</th> <th data-bbox="550 716 758 776">추론적 사고</th> <th data-bbox="762 716 977 776">비판적, 창의적 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2 776 546 813"></td> <td data-bbox="550 776 758 813"></td> <td data-bbox="762 776 977 813"></td> </tr> <tr> <td data-bbox="342 813 546 984">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뭐지?)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td> <td data-bbox="550 813 758 984"> <p>그 원인과 근거는 (이용자가 너무 적은 곳이</p> </td> <td data-bbox="762 813 977 984"> <p>(장소 선정에 조금 더 고</p> </td> </tr> <tr> <td data-bbox="342 984 546 1154">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효과가 너무 낮음)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p> </td> <td data-bbox="550 984 758 1154"> <p>기도 하고 홍보도 안 된 것)이기 때문인 것 같다.</p> </td> <td data-bbox="762 984 977 1154"> <p>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td> </tr> </tbody> </table>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뭐지?)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용자가 너무 적은 곳이</p>	<p>(장소 선정에 조금 더 고</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효과가 너무 낮음)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p>	<p>기도 하고 홍보도 안 된 것)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뭐지?)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용자가 너무 적은 곳이</p>	<p>(장소 선정에 조금 더 고</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효과가 너무 낮음)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p>	<p>기도 하고 홍보도 안 된 것)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마을 순환버스 2대가 다니는 작은 정류장에 두 대나 있는 충전기 다닐 때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음</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관내에 이러한 충전기가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곳은 이곳 한 곳 이런 충전기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음</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위치 선정 방법</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p>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충전기를 처음 봄. 설치 장소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함.</p>

G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1.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전선 지중화</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사실적 사고</th> <th style="width: 33%;">추론적 사고</th> <th style="width: 33%;">비판적, 창의적 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불안)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그 원인과 근거는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보니 합선과 같은 사고가 우려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p> <p>추가적으로 놀라움을 느낀 이유는 평소엔 전선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전선 지중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위험하게 영킨 전선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놀라움)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p> </td> <td></td> <td></td> </tr> </tbody> </table>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불안)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보니 합선과 같은 사고가 우려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p> <p>추가적으로 놀라움을 느낀 이유는 평소엔 전선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p>	<p>(전선 지중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위험하게 영킨 전선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놀라움)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불안)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보니 합선과 같은 사고가 우려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p> <p>추가적으로 놀라움을 느낀 이유는 평소엔 전선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p>	<p>(전선 지중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위험하게 영킨 전선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놀라움)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하나의 전봇대에 여러 방향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전선들이 단순히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엉켜있거나 잘려서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서울의 전선 지중화율은 89.6%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다. 또한 지자체 간 전선 지중화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다. 충남, 강원, 경북은 1% 대이다. 전선 지중화를 하는 방법은 개인이 한전에 신청하는 방법과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경우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지자체 요청시에 지자체의 예산 50%, 한전의 예산 50%가 투입된다.</p> <p>전선 지중화를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반기지 않는다. 변압기와 개폐기는 지상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좁은 도로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변압기와 개폐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서울의 전선 지중화율이 90%에 육박하는데, 내가 거주하는 강북, 특히 주거지역은 지중화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같은 서울에서도 편차가 있는지, 왜 주거지역에서는 위험한 전선들이 많이 보이는지 궁금하다.</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p>전선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다 보니 서울의 전선 지중화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하였다. 그런데 다른 조원분들 피드백에 서울의 지중화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 같다.</p>

G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2.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지하철 유휴 전광판</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사실적 사고</th> <th style="width: 33%;">추론적 사고</th> <th style="width: 33%;">비판적, 창의적 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궁금증)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 전광판이 원래 무엇을 위해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p> <p>추가적으로 당혹스러움을 느낀 이유는 사진</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지금부터라도 전광판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예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당혹스러움)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속 전광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광판과 달리 그 쓰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p> </td> <td></td> </tr> </tbody> </table>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궁금증)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 전광판이 원래 무엇을 위해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p> <p>추가적으로 당혹스러움을 느낀 이유는 사진</p>	<p>(지금부터라도 전광판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예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당혹스러움)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p>	<p>속 전광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광판과 달리 그 쓰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궁금증)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이 전광판이 원래 무엇을 위해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p> <p>추가적으로 당혹스러움을 느낀 이유는 사진</p>	<p>(지금부터라도 전광판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예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당혹스러움)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기록)</p>	<p>속 전광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광판과 달리 그 쓰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전광판 아래의 LED판은 계속 옷는 얼굴 등의 화면이 나오고 있다.</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지하철 전광판으로 광고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한다. 다른 전광판들과 달리 켜져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정보도 알기가 어렵다.</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우선 왜 이런 광고판이 만들어지고, 누구의 소관인지가 불명확해서 그 부분을 알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지하철 전광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얼마나 전력이 쓰이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고 싶다.</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p>전광판이 무슨 용도인지 전혀 몰랐는데, 다른 조원 분께서 광고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조원 분께서는 남는 광고판에 시민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띄우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남는 광고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p>

H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1.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일상의 휴식을 주는 문학의 향기</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사실적 사고</th> <th style="width: 33%;">추론적 사고</th> <th style="width: 33%;">비판적, 창의적 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100px; vertical-align: to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아쉬움)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그 원인과 근거는 (지하철에서 밖에 보지 못해서)이기 때문인 것 같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더욱 적극적으로 시민 작품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td> </tr> </tbody> </table>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아쉬움)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지하철에서 밖에 보지 못해서)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더욱 적극적으로 시민 작품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아쉬움)이라는 기분(느낌)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지하철에서 밖에 보지 못해서)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더욱 적극적으로 시민 작품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장 창작시는 공모전으로 뽑음 - 기존 작품도 함께 걸리고 있음 - 창작시 작품 중 선정성 혹은 수준 미달 등의 이유로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 있었음.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을 정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창작시 공모전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140편이 접수되어 208편이 공모로 뽑힘. - 314개 역 승강장에 유명시인의 시 107편과 함께 2년 동안 게시될 예정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정류장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 상업광고가 주로 있는 대중교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시나 글귀 등을 활용한 문학공간으로 조성할 수 없을까? - 기존 작품을 활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까??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H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2.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p>- 우리 동네 소통창구는 전신주?</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table border="1" data-bbox="343 711 981 993"> <thead> <tr> <th data-bbox="343 711 550 768">사실적 사고</th> <th data-bbox="550 711 757 768">추론적 사고</th> <th data-bbox="757 711 981 768">비판적, 창의적 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3 768 550 993">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의문)이라는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p> </td> <td data-bbox="550 768 757 993"> <p>그 원인과 근거는 (왜 전신주에 광고물을 붙일까)이기 때문인 것 같다.</p> </td> <td data-bbox="757 768 981 993"> <p>(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시판 혹은 광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 바람직할 것 같다.</p> </td> </tr> </tbody> </table>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의문)이라는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왜 전신주에 광고물을 붙일까)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시판 혹은 광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 바람직할 것 같다.</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의문)이라는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p>	<p>그 원인과 근거는 (왜 전신주에 광고물을 붙일까)이기 때문인 것 같다.</p>	<p>(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시판 혹은 광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 대부분의 전신주, 벽 등에 게시물들이 많이 붙어있음</p> <p>-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할 게시 공간이 잘 보이지 않음</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 구청 등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게시물 부착은 불법임.</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 마을 등에서 쉽게 활용할 게시판이나 게시용 플랫폼이 없을까?</p> <p>-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p> <p>- 상업광고와 아닌 것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을까?</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I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1.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div data-bbox="353 310 724 678"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342 716 524 738">- 활주로형 횡단보도</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신기하다)라는 기분(느낌)을 갖게 되었다.</p>	<p>그 원인은 (이 횡단보도를 관심을 가지고 보기 전까지 난 횡단보도 양 옆에 LED유도등을 설치해 교통 안전을 꾀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 적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대단하다)라는 기분(느낌)을 갖게 되었다. (변화기록)</p>	<p>추가적으로 대단하다고 느끼게 된 근거는 (조사 결과 2018년 4월 전국 최초 비신호 횡단보도 96개소에 설치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그 편리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통계를 입증했기) 때문인 것 같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다. 균일한 간격을 두고 양 옆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등은 LED 유도등으로 매립되어 있으며, 깜박거린다.</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야간 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도 유용,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에 맞춰 점등시간 자동 제어 및 조도센서를 통한 자동 작동도 가능하다.</p> <p>1개소당 평균 설치 비용은 860만원 가량으로 스마트형 횡단보도에 비해 저렴하다. 사용 전기료 또한 유도등 10개 기준 1개소당 월 800원 정도 들만큼 경제적이다.</p> <p>설치 후 교통사고 재발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총 96개소 중 1개소에서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재발율이 1%이다.</p> <p>활주로형 횡단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20년 3월 26일 경찰청에서 관련 규정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형태에 맞게 개정했다.</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점등시간 자동 제어 및 조도센서를 통한 자동 작동이 가능하다 하였는데, 고장이나 교체 주기는 어떠한지 궁금하다.</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p>초반에는 이 횡단보도에 대해 단순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신기하며, 이런 횡단보도는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빛이 깜박거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보행자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였는데 다른 교육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읽고 매립 등에 대한 언급에 이 횡단보도의 정확한 이름을 찾아 검색해볼 수 있게 되었고, 조도 센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찾아 보니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려와 달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횡단보도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고 교통안전에도 상상 이상으로 효과적이라 비록 빛 공해 부분의 해결책은 제대로 찾지 못했지만 이 횡단보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되었다.</p>

I 교육 참여자 - 활동일지 2.

구분	내용											
<p>이미지 기록하기</p>	 <p>- 활주로형 횡단보도</p>											
<p>이미지에서 관찰하고 파악한 자신의 기분(느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p>	<table border="1" data-bbox="342 781 979 1455"> <thead> <tr> <th data-bbox="342 781 550 833">사실적 사고</th> <th data-bbox="550 781 758 833">추론적 사고</th> <th data-bbox="758 781 979 833">비판적, 창의적 사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2 833 550 1057">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신경 쓰인다)라는 기분(느낌)을 갖게 되었다.</p> </td> <td data-bbox="550 833 758 1057"> <p>그 원인은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던 노란 칠을 한 공간이 쉽게 때를 타고 다소 더럽게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p> </td> <td data-bbox="758 833 979 1057"> <p>(엘로카펫의 효과는 차량의 속도 감속, 아이들 이 교통신호 지키는 것 등으로 결과적으로 교통 사고 위험을 줄이니, 사인블록이라는 문제 해결</p> </td> </tr> <tr> <td data-bbox="342 1057 550 1455">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쉽다)는 기분(느낌)을 갖게 되었다. (변화기록)</p> </td> <td data-bbox="550 1057 758 1455"> <p>추가적으로 아쉽다 느끼게 된 근거는 (엘로카펫이 그 칠이 벗겨지거나 변색되어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최근엔 사인블록으로 엘로카펫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p> </td> <td data-bbox="758 1057 979 1455"> <p>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td> </tr> </tbody> </table>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신경 쓰인다)라는 기분(느낌)을 갖게 되었다.</p>	<p>그 원인은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던 노란 칠을 한 공간이 쉽게 때를 타고 다소 더럽게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p>	<p>(엘로카펫의 효과는 차량의 속도 감속, 아이들 이 교통신호 지키는 것 등으로 결과적으로 교통 사고 위험을 줄이니, 사인블록이라는 문제 해결</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쉽다)는 기분(느낌)을 갖게 되었다. (변화기록)</p>	<p>추가적으로 아쉽다 느끼게 된 근거는 (엘로카펫이 그 칠이 벗겨지거나 변색되어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최근엔 사인블록으로 엘로카펫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p>	<p>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신경 쓰인다)라는 기분(느낌)을 갖게 되었다.</p>	<p>그 원인은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던 노란 칠을 한 공간이 쉽게 때를 타고 다소 더럽게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p>	<p>(엘로카펫의 효과는 차량의 속도 감속, 아이들 이 교통신호 지키는 것 등으로 결과적으로 교통 사고 위험을 줄이니, 사인블록이라는 문제 해결</p>										
<p>이미지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쉽다)는 기분(느낌)을 갖게 되었다. (변화기록)</p>	<p>추가적으로 아쉽다 느끼게 된 근거는 (엘로카펫이 그 칠이 벗겨지거나 변색되어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최근엔 사인블록으로 엘로카펫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p>	<p>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p>										

<p>이미지를 통해 알게 된 것 기록하기</p>	<p>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펼쳐져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차로나 반대쪽 횡단보도에서도 눈에 잘 들어온다. 노란색으로 칠해둔 것 인 만큼 자세히 보면 그 색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변색된 부분이 있다. 옆에 검은색 작은 팻말이 붙어 있으며, 그 안에 옐로카펫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다. 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다수 이를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p>
<p>이미지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p>	<p>옐로카펫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넋지 효과를 이용해 아이들이 노랗게 칠해진 안전구역에 머물도록 유도한다.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감속 주행하는 경향을 보이며, 차량의 진입속도 또한 감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옐로카펫은 총 88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p> <p>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미관을 해치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가 되는 문제점도 있었으나, 이를 의식한 것인지 최근 사인블록 옐로카펫이 등장했다. 사인블록 옐로카펫은 블록 자체가 유색 재질로 되어 있어 변색이나 칠이 벗겨지는 우려가 적다. 또한 문자나 아이콘 등이 삽입된 기능성 블록을 바닥에 시공해 보행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p>
<p>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작성하기</p>	<p>옐로카펫 설치비용과 기존의 옐로카펫을 사인블록 옐로카펫으로 바꿀 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궁금하다.</p>
<p>다른 교육 참가자 피드백 기록하기</p>	<p>옐로카펫 관리 소홀 등에 대한 나의 우려에 다른 교육 참여자들께서도 많이 공감해주셨고 이에 추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최근 사인블록 옐로카펫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옐로카펫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보행자들도 있으니 옐로카펫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주신 교육 참여자 분이 계셨는데, 사인블록 옐로카펫은 블록에 문자와 아이콘이 있어 단순히 옐로카펫 옆에 작은 안내판이 있는 것보다 보행자들이 접근성 높고 쉽게 옐로카펫의 용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p>

③ 2주차 교육 참여자 활동 소감나누기



"동네에 대해 더 알려면 일상에서부터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 같아요. 참여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과제를 부족하게 해왔는데도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편치 않은 감정, 서운함, 불편함, 불쾌함 등이 들기도 했지만 자료를 찾으며 행정의 입장이 이해도 되는 과정이었어요. 조금 더 세련되게 대화할 수 있어야겠구나 느꼈고, 개인적 감정보단 잘 정돈하여 대화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제 작성 자체가 스스로 배우는 과정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동네의 일상적 소재를 통해 부담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주민들과 이번 과정을 진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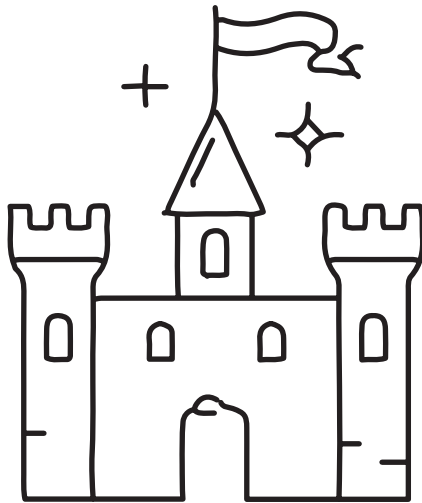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아 감사하다. 또 교육이 전달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뤄지는 면이 흥미롭습니다. 칭찬하고 서로에 이야기에 경청하는 분위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분위기까지, 흠뻑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살면서 주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그럴 일이 드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게 낯설기도 하고 골치아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사례, 3주차 (10월 26일~30일, 5회차/6회차/7회차 교육 진행)

① 3주차 개요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10월 26일 월요일 5회차 프로그램은 2주차 공동 프로젝트로 결정된 내용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비대면 교육 워크숍으로 교육 참여자들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이때 결정된 내용이 3주차 활동일지로 조별로 자신들의 양식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주차 활동일지는 위키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별 교육 참여자가 자신이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내용을 스스로 채워나가면서 문제해결의 내용들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3주차 공동 프로젝트 진행의 소통의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소통을 진행했다.

10월 29일 목요일 6회차 프로그램은 10월 30일 7회차 프로그램에서 공동 프로젝트 최종 결과발표를 위한 조별 사전 점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0월 30일 금요일 7회차 프로그램은 공동 프로젝트 최종 결과 발표와 공유로 진행되었다.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해서 교육 참여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3일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실한 내용들이 공유되었다. 또한 구글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링크로 거의 모든 자료들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

1조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청와대 청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다. 교육 참여자 중에서 청와대 청원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교육 참여자들과 주변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조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활용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짧은 시간으로 공론장 기획까지는 나아가지는 못 하였지만, 이웃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별 활동을 넘어서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1조, 카카오톡 활용 사례>

엄지척 제이지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국내의 현황과 관련 법률동향
등을 두루 볼 수 있어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10:01

엄지척 제이지
— 정관신영중 —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주세요
참여인원 : [7,074명]
12대 2회(2023.04.14) 1명(44세 2020-09-02) 1명(44세 2020-11-11) 1명(41세 2020-09-02) 오전 10:02

엄지척 제이지
국민청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틀전에 5천명이 조금
넘었는데, 현재 7천명이
넘었네요. 오전 10:03

빈털터리 제이지
링크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오전 10:04

엄지척 제이지
냉~[https://
www1.president.go.kr/
petitions/593390](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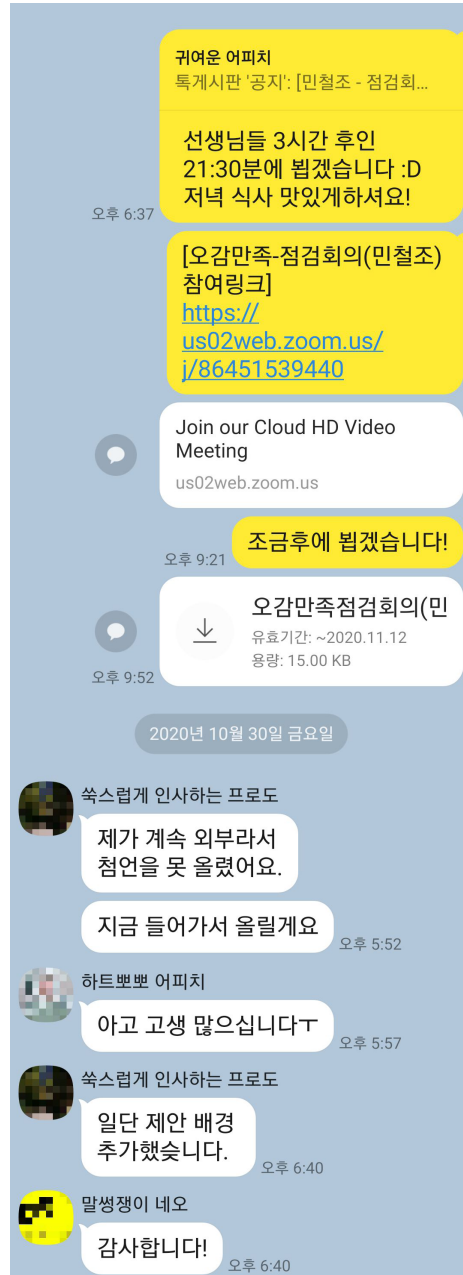
청와대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www1.president.go.kr 오전 10:04

베개를 부비적대는 라이언
오!대박 오전 10:04

초롱초롱 튜브
우오~ 오전 10:07

귀여운 무지
놀랍네요 그런데 제목이 좀
.... 청소년과 어른을 보호해
달라니까 마치 누구로부터
보호해
달라는것인지...차라리
시민은 보호해 달라고 하면
어떨을까... 오전 10:15

<2조, 카카오톡 활용 사례>



② 3주차 활동일지

□ 3주차 활동일지 양식 - 1조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 문화 만들기)

목차
1. 관찰 사례
2. 사례 구체화
3. 이야기/논란
3.1. 제도적 문제
3.2. 사회적 인식 개선
3.3. 대안마련
3.4 관련 기사
4. 해결방안

□ 3주차 활동일지 양식 - 2조 (시민들과 함께하는 서대문구 생태꽃길 가꾸기)

목차
1. 관찰 사례
2. 사례 구체화
3. 사업진행과정
4. 사업결과
5. 주민의견수렴 방안
6. 생태적 가치고려

1조 활동일지 사례 : 공유 전동 키패드 안전 문화 만들기

목차

1. 관찰 사례
2. 사례 구체화
3. 이야기/논란
 - 3.1. 제도적 문제
 - 3.2. 사회적 인식 개선
 - 3.3. 대안마련
 - 3.4 관련 기사
4. 해결방안

1. 관찰 사례

2020.10.13. by

Haesook Kim
 새로운 멤버 · 10월 13일 오후 10:20 · 3

제목: 나회 집은 어디니?

어느새 눈에 익은 건물로 이동하러,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나도 한번 타볼까'를 생각하게 하는 요즘 핫한 이동수단 것 같다. 몰다전 스카이 오픈 라일딩 앞에 여러 명이 이 건물로 이동하러 이동하는 것을 보며 많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 수가 많아져서인지 인도, 여기저기 의문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본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따릉이처럼 이 건물 로딩라일딩과 주차 공간이 있어 대여하기도, 반납하기도 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인도 여기저기 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 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여 사업을 도입할지, 면적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을 것인지 싶다. 여기저기 인도에 몰려져 있는 건물 로딩라일딩 문제는 경찰을 도입하여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지 않을 문제일까? 아닐 이동 수단들의 낯은 시민으로서 어떤일까? 궁금하다.

#참여예산 #전통로딩라일딩, 주차공간



2020.10.17. by

Ara Choi
 새로운 멤버 · 10월 17일 오전 10:03 · 3

다른 분이 올라주신 것이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생각한 부분이 올라옵니다. 한편에 또 다른 타자가 도착 할때 생각됩니다. 규제가 있으나 이용자들이 지켜지지 않고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는 것도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약자 관점에서 장애인들 특히 시각 장애인에게 이 로딩라일딩 부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도에서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타는 분들에게 대해 방지용인 지자체, 관리인력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서비스에 대해, 사고나 사고가 생기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배달)인원이 늘리는 것과는 차등이 다른) 부분을 고려 할것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2. 사례 구체화

○ 사실적 사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이동기구를 공유할 수 있다니 신기하고 재밌다. 생각보다 많은 인도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걸 보며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추론적 사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데 가끔은 전철역 또는 버스 정류소까지 걸어가기에 애매한 거리이고, 때론 걷는 게 너무 힘든 날이 있는데, 그런 때 뭔가 이동수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 비판적, 창의적 사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면 좋지만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질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거치대나 거치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추가정보

- ‘라스트마일’ 이동수단
- 킥보드 3대 업체 : 킥고잉 vs 빔 vs 라임
- 이용방법 : 모바일 설치→회원가입→운전면허증과 요금결제용 카드 등록
- 이용요금 : 기본료 1000원, 5분 이후 추가요금 1분당 100원
- 정기적으로 킥보드를 일괄 회수해 충전 및 정비 진행, 거치대 X (반납은 건물 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세워 놓으면 되기 때문)
- 서울에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수 : 총3만 5850대(16개 업체), 2020년 들어 급증
- 지자체별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 1951건(2020년 7월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 2019년 1,927건, 2018년 511건

- 민원내용 : 1순위 주차민원(갑툭튀), 2순위 인도주행 등 안전민원
- 업체 대응
 - 국내 업체들(올룰로, 피유엠피)은 구청에 핫라인 민원이 들어오면 2시간 안에 출동
 - 글로벌 업체 : 사후관리 소홀(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운영 대수를 늘린 결과)
- 한국교통연구원, 2017년~2019년 8월 국내 수입된 전동킥보드 수는 총 48만 1427대. 이중 공유킥보드로 쓰이는 기기는 약 5만대 추정
- 지자체 대응
 - 서울시, 카카오모빌리티, 라임, 올룰로, 피유엠피 등 16개 주요 업체와 가이드라인 업무협약 추진 중
 - 가이드라인 내용: 주차 권장구역(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10여 곳)과 제한구역(차도, 보도중앙,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 건물 출입구 등 14곳) 설정
- 정부(국토교통부) 대응
 - 개인용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지위 규정 법안(가칭 PM법)
 - 내용: ① 도로교통법 개정,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주행 허용, ② PM 대여사업자의 법률적 지위 명확히.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신고나 허가 없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꿔 관리가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
(※ 도로교통법 개정과 PM법안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됨)
- 인천 상황
 - 현황 : 1천대 이상, 서비스업체는 7곳
 - 주로 도로 정비가 잘된 연수구(송도 국제도시), 서구(청라 국제도시)에 집중
 - 업체 현황 : 1위 '라임'이 400여대 이상 운영. 킥고잉 (부평구 300여대·송도국제도시 40여대), 지쿠테(송도국제도시 100여대·인하대 30여대), 머케인메이트(송도국제도시 60여대·부평구 20여대), 디어 (송도국제도시·연수구 70여대). 연수구가 400대 이상으로 대부분 차지
 - 이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와 연수구, 경제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수나 업체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 [20200609_정부발표]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1인 탑승)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한다.

3. 이야기/논란



3.1 제도적 문제

-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용자의 안전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도 보행자(장애인, 비장애인 등)의 안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용 안내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신고제나 허가제로의 전환 필요

3.2 사회적 인식 개선

3.3 대안 마련

3.4 관련 자료

- 청와대 청원

— 청원진행중 —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주세요

참여인원 : [8,451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시작	2020-10-12	청원마감	2020-11-11	청원인	naver-***
------	----------	------	------------	------	------------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완료

청원내용

공유킥보드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주세요.

금일 MBC 실화탐사에 나온 전동킥보드 문제내용을 보았습니다.
보는내내 분노가 차밀어 올라왔습니다.

• 언론 브리핑

〈업체 대응〉

- 국내 업체들(올룰로, 피유엠피)은 구청에 핫라인 : 민원이 들어오면 2시간 안에 출동
- 글로벌 업체 : 사후관리 소홀(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운영 대수를 늘린 결과)
- 한국교통연구원, 2017~2019년 8월 국내 수입된 전동킥보드 수는 총 48만 1,427대 중 공유킥보드로 쓰이는 기기는 약 5만대로 추정

〈지자체 대응〉

- 서울시, 카카오모빌리티, 라임, 올룰로, 피유엠비 등 16개 주요 업체와 가이드라인 업무협약 추진 중
- 가이드라인 내용 : 주차 권장구역(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10여곳)과 제한구역(차도, 보도중앙,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 건물 출입구 등 14곳) 설정

〈정부(국토교통부) 대응〉

- 개인용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지위 규정 법안(가칭 PM법)
- 내용 : ① 도로교통법 개정,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주행 허용, ② PM 대여사업자의 법률적 지위 명확히.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신고나 허가 없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꿔 관리가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도로교통법 개정과 PM법안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됨)

〈인천시 상황〉

- 현황 : 1천대 이상, 서비스업체는 7곳
- 주로 도로 정비가 잘된 연수구(송도 국제도시), 서구(청라 국제도시)에 집중
- 업체 현황 : 1위 '라임'이 400여대 이상 운영. 키크고잉(부평구 300여대·송도 국제도시 40여대), 지쿠터(송도국제도시 100여대·인하대 30여대), 머케인메이트(송도국제도시 60여대·부평구 20여대), 디어(송도국제도시·연수구 70여대). 연수구가 400대 이상으로 대부분 차지
- 이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와 연수구, 경제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수나 업체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2020년 6월 9일 정부발표,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1인 탑승)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한다.

〈관련 기사 자료〉

- 횡단보도 한가운데 떡하니... 공유 킥보드 해법에 정부 골머리
- 안전문제 외면하는 전동킥보드 개정안
- “차도 아니고 킥보드니까” 비틀비틀 ‘음주 킥보드’, 시민들 ‘불안’
-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372>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48294>
- <https://www.mbn.co.kr/news/society/4320771>
- 사고 느는데 전동 킥보드 12월부터 중1도 탈 수 있다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 반갑다! 전동킵보드 전용 주차장·거치대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010292322003&sec_id=560101 전동킵보드 불법 개조·안전모 미착용 처벌 입법 나선다
- <https://news.v.daum.net/v/20201027191218917>
전동 킵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고등학생 치료중 숨져

4. 해결방안

4.1 12월 법률 개정 전 공론화

(미작성)

4.2 사회적 인식 개선

(미작성)

4.3 대안 마련

전동킵보드 전용 주차장, 거치대 설치
전동킵보드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처벌 입법

4.4 사용 요금 문제

(미작성)

4.5 적절한 이용법 및 사용법

(미작성)

5. 기타 추가 진행 사항

1조는 2주차 2순위 공동 프로젝트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제해결을 추진하였다.



【서지 1】

일반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제안사업내용

분 야	□구도형질 조속도달을 위한(인근)주요 시설개선 □주요도로변 상가·복합시설 정비 □주요도로변 상가·복합시설 정비 □주요도로변 상가·복합시설 정비
사 업 명	도로 차 통행에 불 방해차
사업기간	2021. 3. ~ 2021. 6.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 ()
사업면적	면적(㎡) : 45
필 요 성	<p>□ 동남역 광다의 보도는 통행의 안전에서 일부의 확보를 전제하는 형태로 이 통로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 통로를 사정, 도로변의 차선과 차선 사이의 구획선이 미흡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p> <p>□ 동남역 광다의 보도는 통행의 안전에서 일부의 확보를 전제하는 형태로 이 통로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 통로를 사정, 도로변의 차선과 차선 사이의 구획선이 미흡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p>
사업내용	<p>제안서 작성시 전담형() □동남역광다()</p> <p>1. 동남역 광다 사이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음벽 설치 및 개선 작업 → 45㎡면적</p> <p>2. 동남역 광다와 차선과 차선 사이의 구획선을 미흡한 구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 45㎡면적</p> <p>3. 동남역 광다와 차선과 차선 사이의 구획선을 미흡한 구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 45㎡면적</p>
기대효과	<p>1. 동남역 광다의 보도에 대한 시민 의견 반영 확보</p> <p>2. 동남역 광다의 보도에 불편한 이용 주민 개선</p> <p>3. 동남역 광다의 보도에 대한 안전 확보</p>

사진

2조 활동일지 사례 : 시민들과 함께하는 서대문구 생태꽃길 가꾸기

목차

1. 관찰 사례
2. 사례 구체화
3. 사업진행과정
4. 사업결과
5. 주민의견수렴 방안
6. 생태적 가치고려

1. 관찰 사례

- 제안 배경 : 서대문 협치 의제로 진행중인 홍제천 생태조사 용역 과정 중 중간보고회와 홍제천 모니터링의 과정을 거치면서 홍제천의 초목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을마다 진행되는 홍제천 꽃길 사업을 보니, 기존의 초본 식물들을 모두 걷어내고 심은 곳들이 있었다. 이러한 꽃길 사업은 이제 광역자치구나 기초자치구 대부분에서 시행중이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예산 사용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였고, 담당 부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궁금하였다. 또한 생태적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대다수의 주민이 만족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생태적 가치의 고려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한다.

#참여예산 #가을꽃심기 #결정기준

홍제천 주변에 가을마다 꽃을 심어요.
예쁘다고 사진을 찍는 주민들도 있고요,
생태자원인 초본생물을 없애고 큰 예산을 쓴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행정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결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사례 구체화

○ 사실적 사고

예산낭비라는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자연훼손이라는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

○ 추론적 사고

그 원인과 근거는 자연생태보호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 같다.

○ 비판적, 창의적 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 추가정보

- 만족하는 주민들이 많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 보기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 매년 자생적인 토종 식물을 없애고, 거액의 예산을 소진한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라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 모임에서는 자연 초본을 활용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 어느 기준으로 방침을 세우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인지
-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러한 꽃들을 심으면 좋아할 것이다. 지자체의 다양한 꽃 축제들이 그렇게 사람을 모으면 성공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이 맞는지 한번쯤은 고민하고 공문장 등을 활용해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미래 세대까지의 환경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홍제천 이용자들의 의견과 생태적 가치가 이해상충할 때 고민, 노력해야 할 부분은?

3. 사업진행과정

3.1 해당부서 방침(연례적)

- 서대문구 '꽃길'로 검색해보면 하천변 사업을 제외하면 보도 위 화분 사업이 많이 검색됨
- 도심 내 녹지가 공원 및 천변 밖에 없기 때문에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하천정비 사업쪽에 가까운가?

3.2 공사

- 2018년 푸른도시과(안전건설교통국 소속)에서 조성, 홍은2교에서 백련교 폭포마당에 이르는 670m 구간을 꽃길로 조성함
- 2019년에는 홍제천 꽃길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을꽃길 조성함, 회의록이나 사업 관련 서류 부재

3.3 철거(철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제주시의 경우 핑크물리의 이해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행정기관에서 식재한 핑크물리를 교체하기로 결정, 홍제천 꽃길도 위해성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성 평가에 따라 철거여부 결정할 수 있을 듯

3.4 관련 기사

- 홍제천 꽃길 관련 기사 : 서대문구, 홍제천 꽃길조성...8일부터 '시민 공개'
-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 사례 : 서울 중랑천서 멸종위기 흰목물떼새 번식 성공... "준설 인한 모래톱 훼손 막아야"
- 화성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례 : "수달이 사는 도심 속 생태하천, 오산천 함께 지켜요!"
- 남양주시 생태하천 복원 시도 사례 : 남양주시새마을회,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운동' 실시
- 안산 야생화 꽃길 사례 : (기사)안산시'야생화가 있는 꽃길' 하천 조성

4. 사업 결과

4.1 주민만족도

- 서대문구 페이스북 가을꽃길 홍보 게시글에 달린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 대체로 크게 꽃길 사업에 대한 불만족이 보이지는 않았음
다만 홍제천 꽃길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음

4.2 생태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

- 꽃길 조성 사업에 많이 사용되는 금계국의 경우 번식력이 상당해서 생태계 교란 문제 있음
- 홍제천 꽃길 역시 경관만 고려하고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를 할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 도심에서 녹지지역은 공원, 산책로, 천변 정도인데 관련 부서가 다룰 가능성이 높아 생태꽃길 관련하여 어떻게 제안할지 고민

5. 주민의견수렴 방안

- 사업 계획기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홍보가 필요하다 여겨짐

5.1 공론장

-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모두 모여 꽃길 사업에 대해 논의하긴 어렵겠지만 각 구역별로 대표가 나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공론장은 의의가 있어 보임

5.2 온오프 설문지

- 꽃길 조성에 어떤 꽃들이 사용될지, 완성 예상 이미지는 어떠한지 등을 웹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그와 관련된 문항들이 기재된 설문지를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됨

6. 생태적 가치 고려

6.1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

-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생물 중 식물은 가시박, 서양금혼초, 돼지풀 등 총 14종임(2018년 지정 기준) :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생물 자료(링크로 관련 자료 확인 가능)
- 환경부 지정 위해 우려종 중 식물은 총 41종임 : 위해우려종 관련 자료(링크로 관련 자료 확인 가능)
- 환경부 지정 유입 우려생물 200종 중 식물은 50종임 : 유입 우려생물 관련 보도자료(링크로 관련 자료 확인 가능)

6.2 좋은 예시

-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복원 중기계획에 따라 하천복원 사업 추진 중(링크로 관련 자료 확인 가능)
- 국가철도공단-부산시, 해운대 옛철길 자연친화적 공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하여 사업 추진 예정(링크로 관련 자료 확인 가능)
- 특이하게 남은 서울 마지막 녹지 이렇게 쓰면 된다(링크로 관련 자료 확인 가능)

5.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평가 공유회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7시~9시 진행)

① 평가 공유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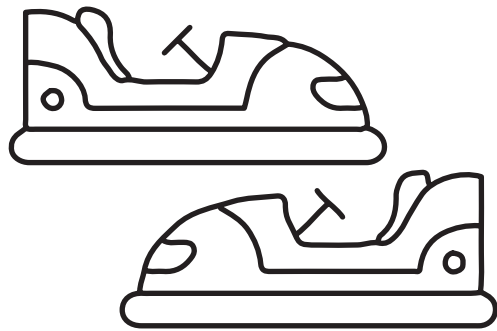
- 일시 : 2020.11.11.(수)
-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 참여 : 교육참여자 4명, 교육진행자 2명, 서울시NPO지원센터 1명

- * 감성충만예산학교 기획배경 및 취지
- * 감성충만예산학교 회차별 교육과정 소개
- * 감성충만예산학교 소감나누기
- * 감성충만예산학교 보완지점 및 활용방안 나누기

② 평가 공유회 결과 요약

구분	내용
<p>좋았던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하우스 모델로 사례를 구조화해서 정리한 점이 좋았다. • 행정에서 항상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위키방식으로 정리하니 좀 더 설득력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설득력 있게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 • 과제에 대한 압박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점점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느껴졌다.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는 것을 1주차에 경험을 했고, 각기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2주차에는 다시 나의 시각에 다시 집중하 수 있었는데 2개의 사업으로 정리하면서 내가 관심있어 하는게 어떤 것인지 명확해졌다. 약간 집착하게 되는? 평소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는 법률, 제도에 특히. 3주차에서 다른 조의 사례를 보면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내 주변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특히 의제 개발로 좋을 것 같다. 다만 어르신은 힘들 것 같고, 청년, 여성 등의 교육과정에는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교육자도 참여자와 같이 팀으로써 함께 참여한다고 느껴진 점이 좋았다. • 주민의 입장에서 동네에 관심 갖고, 시야를 넓히도록 돕는 방식을 발견한 것이 좋았다. • 주민자치는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건데, 이런 것이 교육으로 될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결국 관계인것 같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형성으로 가는게 교육의 제 1가치라는 생각, 이런 부분이 잘 녹여진 것 같다.

보완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사례지 양식의 지시문이 어려워 쉬운 언어로 대체가 필요할 것 같다 • 활동 영역에 있는 분들이어서 좀 쉽게 진행된 것 같은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 감성충만예산학교 과정의 목표와 기대결과물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 예산 교육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조금 더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 • 감성충만예산학교로 인한 참여자의 인식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로 작은 성취를 함께 달성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협력할 수 있다. 지금은 너무 큰 것만 이야기 한다. 마을을 바꾸자가 아닌 마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작은 것에서 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교육활동가를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한다면, (이번 과정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미지와 질문의 연결, 그 다음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구조화가 필요할 것 같다. • 전달 중심 교안은 마무리가 쉽다. 하지만 참여자 중심의 교안은 상황에 맞게 리뷰를 잘 해주고 참여자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 교육 과정을 계획해야한다. 우리도 진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 의심도 있어서 쉽게 전달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라는 유혹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 우리가 그동안 왜 안했나? 힘들어서, 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가 아닐까?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관계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참여자만이 아니라 교육 진행자들의 관계도 중요하다. • 꼭 예산으로 풀기 보다 관심있는 의제로 세분화시켜 소규모 그룹단위의 자기 학습 모델도 가능할 것 같다. 활동가들도 함께 하면 결과들이 쌓이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가 될 듯 하다. 과제 형식으로 정리하고 공유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면 좋겠다.



6. 오감만족 예산학교 프로그램 확산 사례 소개



사례 A



역세권 청년주택이 우리 구에도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원룸이고, 민간 분양의 시세는 보증금 4500-6500에 월40만원-50만원으로 그다지 저렴하다고 느껴 지지도 않습니다.

“청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지금 있는 정책들을 좀 더 다듬어서 정리하고, 원룸양산은 그만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집들을 그래서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의 주거정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원룸에서 차 없이 지내고 월 얼마씩 꼬박꼬박 내면, 언제 저축하고 언제 돈 모아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을까요, 원룸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라고 하는 걸까요?

청년은 이정도면 된다는 인식? 이미 집값이 오를 듯이 올랐으니 이 정도만으로 만족해야한다는 사회저변의 분위기, 민간임대로 대부분 지어지는 청년주택장사들?

청년주택으로 이름을 붙여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공공임대 부분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이나 다양한 주거 정책들을 일하는 청년들도 접근가능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한두 평 원룸에 월세에 치여서 살게 하지 않게 하계끔 하면 좋겠습니다.

정책제안? 주거운동? 무엇부터 해볼 수 있을까요?



사례 B



인도인지, 차도인지, 자전거 타는 곳인지

현행법상 자전거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서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역의 몇몇 도로들에서) 자전거 도로는 인도 안쪽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인도와 분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들도 많아지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보행자도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역민들이 느끼는 보행자, 전동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우리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 C



수많은 위원회, 분과, 민관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운영되는 회의도 정기적이지 않고 꾸준히 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민관협치가 가능한것인가, 조직과 단위는 많은데 행정에서 제대로 감당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선 관이 주도하고, 정보의 불균형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례적인 모임과 내실있는 회의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사진찍으러 가는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회의와 위원회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려한다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회의를 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발행일	2020년 11월 20일
발행처	오감만족예산학교
만든 사람들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국장) 김민철 (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참여국장) 강준원 (회의설계소 퍼실리테이터)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نار루 5층
전화	02) 921-4709
메일	action@action.or.kr
홈페이지	action.or.kr
감성충만예산학교 페이스북 그룹	facebook.com/groups/actionpb

※이 자료집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2020 NPO참여예산제'로 제작 되었습니다.